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 성 우

우리나라 대학생의 노인부양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2002년 8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이 신 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 성 우

우리나라 대학생의 노인부양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2002년 8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이 신 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 성 우

우리나라 대학생의 노인부양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위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8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이 신 호

이신호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정함

2002년 8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5

제 2 장 노인부양의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노인의 개념 및 특성 7

1. 노인의 개념 7

2. 노인의 특성 9

제 2 절 노인부양의 형태 10

1. 노인부양의 정의 10

2. 경제적 부양 11

3. 정서적 부양 12

4. 서비스 부양 13

제 3 절 노인부양의 문제 14

1.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노인부양 문제 14

2.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부양 문제 20

3. 노인부양과 관련 제문제 25

제 4 절 각국의 노인부양 정책 29

1. 우리 나라 29

2. 영 국 31

3. 미 국 32

4. 일 본 35
제 5 절 선행연구 36
제 3 장 연구방법 42
1. 연구의 표본 42
2. 연구의 모형 43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5
제 4 장 결과의 분석 46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6
제 2 절 노인부양 의식의 실태 53
1.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태도 53
2. 노인 부양에 대한 의식 태도 63
3. 자신의 노후에 대한 의식 태도 82
4. 노인에 대한 부양 의식 태도 93
5.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식 태도 104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07
참고문헌 113
부록(설문지) 119
ABSTRACT 127

표 목 차

<표 1- 1> 연구의 내용 6

<표 2- 1> 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 비교 15

<표 2- 2> 평균 수명 추이 16

<표 2- 3> 세대 구성의 변화 17

<표 2- 4> 인구의 연령구조 및 부양비 추이(1970~2030) 19

<표 2- 5> 노부모의 부양 책임에 관한 태도 21

<표 2- 6> 부모의 생계부양 22

<표 2- 7>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및 평균 자녀수 24

<표 2- 8> 실제 부모부양 여부(가구주) 24

<표 2- 9> 노후준비 방법(가구주) 26

<표 2-10> 의료보험에서의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28

<표 2-11>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98) 28

<표 3- 1> 지역별 및 성별 분포 43

<표 4- 1>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 47

<표 4- 2>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47

<표 4- 3> 조사대상자의 출생 순위별 분포 48

<표 4- 4> 조사대상자의 종교별 분포 48

<표 4- 5> 조사대상자의 가구 월평균 소득별 분포 49

<표 4- 6>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49

<표 4- 7>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직업별 분포 50

<표 4- 8> 조사대상자 어머니의 직업별 분포 51

<표 4- 9> 조사대상자 부모의 맞벌이 가정별 분포 51

<표 4-10> 조사대상자의 조부모와 동거경험 유무별 분포 52

<표 4-11> 조사대상자 부모의 노후 준비 방법 53
<표 4-12> 노인 연령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54
<표 4-13> 노인 연령에 대한 출생 순위별 의식 태도 54
<표 4-14> 노인 연령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55
<표 4-15> 조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56
<표 4-16> 노인에 대한 존경의식의 성별 T-검증 결과 56
<표 4-17> 조사대상자의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57
<표 4-18> 식단 작성의 성별 의식 태도 58
<표 4-19> 식단 작성의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58
<표 4-20>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의 성별 의식 태도 59
<표 4-21>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의 소득별 의식 태도 .. 60
<표 4-22>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의 맞벌이 가정별 의식 태도 . 61
<표 4-23>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62
<표 4-24>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성별 T-검증 결과 62
<표 4-25>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맞벌이 가정의 의식 태도 62
<표 4-26> 노인부양 방법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64
<표 4-27> 노인부양 방법에 대한 연령별 의식 태도 64
<표 4-28> 노인에 대한 성별 부양책임 65
<표 4-29> 노인에 대한 연령별 부양책임 66
<표 4-30> 노인부양 형태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67
<표 4-31> 노인부양 형태에 대한 연령별 의식 태도 68
<표 4-32> 노인부양 형태에 대한 출생 순위별 의식 태도 69
<표 4-33> 노인부양 형태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한 경험별 의식 태도 .. 69
<표 4-34>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70

<표 4-35>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출생 순위별 의식 태도 72
<표 4-36>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별 의식 태도 73
<표 4-37>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맞벌이 가정별 의식 태도 . 74
<표 4-38>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 75
<표 4-39> 부모님(시부모님)과 동거 여부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76
<표 4-40> 부모님(시부모님)과 동거 여부에 대한 T-검증 결과 76
<표 4-41>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직업별 의식 태도 77
<표 4-42> 부모님(시부모님)과 동거 여부에 대한 분산분석 77
<표 4-43> 부모님(시부모님)과 동거 여부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78
<표 4-44> 친정부모(장인장모)와 동거 여부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79
<표 4-45> 친정부모(장인장모)와 동거 여부에 대한 성별 검증 결과 79
<표 4-46> 친정부모(장인장모)와 동거 여부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80
<표 4-47> 친정부모(장인장모)와 동거 여부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의 분산분석 80
<표 4-48> 외동딸과 결혼 후 부모부양 의식 태도 81
<표 4-49> 와동아들과 결혼 후 부모부양 의식 태도 81
<표 4-50> 성별 노후에 대한 자녀와 동거 의식 태도 82
<표 4-51>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에 대한 성별 T-검증 결과 82
<표 4-52> 연령별 노후에 대한 자녀와 동거 의식 태도 83
<표 4-53> 출생 순위별 노후에 대한 자녀와 동거 의식 태도 83
<표 4-54> 출생 순위별 노후에 대한 자녀와 동거 의식 태도의 분산분석 .. 84
<표 4-55> 부모 맞벌이 가정별 노후에 대한 자녀와 동거 의식 태도 .. 84
<표 4-56> 부모 맞벌이 가정별 노후에 대한 자녀와 동거 의식 태도의 분산분석 85

<표 4-57> 성별 자녀부양 기대 의식 85
<표 4-58> 자녀부양 기대 여부에 대한 성별 T-검증 결과 85
<표 4-59> 연령별 자녀부양 기대 의식 86
<표 4-60> 출생 순위별 자녀부양 기대 의식 87
<표 4-61> 출생 순위별 자녀부양 기대 의식의 분산분석 87
<표 4-62> 부모의 맞벌이 가정별 노후에 대한 자녀부양의 기대의식 태도 .. 88
<표 4-63> 부모의 맞벌이 가정별 노후에 대한 자녀부양의 기대 의식 태도의 분산분석 88
<표 4-64> 조부모과 함께 산 경험별 자녀부양 기대 의식 89
<표 4-65> 조사대상자의 성별 노후준비 방법 90
<표 4-66> 조사대상자의 출생 순위별 노후준비 방법 90
<표 4-67> 조사대상자 가정의 노후준비 방법 91
<표 4-68>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성별 의식 태도 92
<표 4-69> 노인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성별 T-검증 결과 92
<표 4-70> 노인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 93
<표 4-71> 성별에 따른 경제적 부양의식 태도 94
<표 4-72> 성별에 따른 정서적 부양의식 태도 96
<표 4-73> 성별 서비스 부양의식 태도 97
<표 4-74> 성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 99
<표 4-75> 성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99
<표 4-76> 출생 순위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 100
<표 4-77> 출생 순위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100
<표 4-78> 종교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 101
<표 4-79> 종교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101

<표 4-80> 소득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 102
<표 4-81> 소득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102
<표 4-82> 지역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 103
<표 4-83> 지역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103
<표 4-84>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직업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 104
<표 4-85>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부양 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104
<표 4-86> 조사대상자의 성별 노인부양 문제해결 의식 태도 105
<표 4-87> 조사대상자의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노인부양 문제해결 의식 태도 105
<표 4-88> 조사대상자의 정부차원 지원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106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모형 44
<그림 4-1> 노인에 대한 성별 부양책임 66
<그림 4-2> 노인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성별 의식도 71
<그림 4-3> 노인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출생순위별 의식도 72
<그림 4-4> 부모님과 동거 여부에 대한 성별 의식도 76
<그림 4-5> 성별 경제적 부양 의식도 95
<그림 4-6> 성별 정서적 부양 의식도 96
<그림 4-7> 성별 서비스 부양 의식도 98
<그림 4-8> 성별 노인부양 의식도 99
<그림 4-9> 정부차원 지원에 따른 성별 의식도 106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노인의 지위가 확고했고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3대 4대가 오손도손 모여 사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였다.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는 노인부모를 성인자녀가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한 가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이후 산업화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이농향도의 인구이동과 지역확장, 시승격 등의 요인으로 도시거주 인구의 급속한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이혼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우리 사회의 빠른 변동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 유교사상 방식의 노인세대와 서구적 사고방식의 젊은 세대가 공존하면서 대가족 제도는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함께 모여 사는 것보다 떨어져 사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필요 할 때 가끔씩 찾아 뵙고 만나는 것이 애틋한 가족 사랑의 한 방편으로 자리 메김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가정 내에서도 가치관의 차이와 세대간의 대립, 고부간의 심리적 갈등문제 등 노인부양 의식에 심각한 병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의 공급은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 단지로 변모[1]하고 핵가족 위주의 주거공간 구조로 공급되

면서 3세대가 거주하기에는 불편한 주택정책과 부모는 보수적인데 비해서 젊은 세대들은 진보, 혁신, 창조 지향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고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 감소 등으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과거에 비해 노인부양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한 반면, 노인을 부양할 자녀의 감소로 그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의 감소는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국가부담이 커지고 노인인구 증가로 각종 사회문제와 노인부양비의 가중에 따른 가족과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노인 인구가 매일 390여명씩 1년에 14만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대에 가면 940명씩 1년에 34만명이 늘어나게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될 전망이며, 2001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0.5%로 생산가능인구 9.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35.7%로 늘어나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실정이며, 노인부양을 가족의 책임이라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않되는 시점에 놓여있다.[2)]

또한 보건복지부의 2001년 7월까지 집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가운데 부양의무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5,572가구 8,077명으로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 가족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노인이 건강문제로 고충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독하게 별 할 일 없이 무료하게

---

1) 2000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일반 가구 중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가 49.6%, 아파트 36.6%, 연립주택 5.8% 순위로 5년전 보다 단독주택 거주 가구는 7.9% 감소한 반면 아파트 거주 가구는 50.6%가 증가했다. 총 주택수(빈집제외)에서 아파트 비중은 47.7%, 단독주택은 37.1%로 아파트가 주된 주거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report/data, 2001.10.16 발표)

2) 전국노인단체협의회, 「21세기 고령화사회 노인복지행정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2001.12.5, p.1.

노후시간을 보내고 있다.[3]

최근 남녀 고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노부모 부양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정보다는 사회에 있으며, 존경의 대상(27.5%)이라기 보다는 측은한 대상(33.7%),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는 편(20.2%)이라고 응답해 가족해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과 함께 현실적인 노인문제를 개인과 가정이 아닌 사회문제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4]고 지적하고 있다.

노인부양이 가족부양으로부터 사회부양의 형태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이유중의 하나는 가족구조가 산업화에 따라 전통적 가족구조로부터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의학기술의 발달,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부양해야 할 기간의 장기화, 출산률 부족(baby dearth), 다산률 세대의 고령화(Aging of Baby Boom Generation) 등으로 연소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의 증가[5]로 가족이 부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서구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사회보장 방법에 의한 부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전통사회에서의 노부모부양은 거의 맹목적이고 자연적인 의무로 인식되어 노인부양의 책임을 가족이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궁극적인 책임은 장남의 몫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의 노부모부양 방법은 크게 변하고 있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미래의 중년층은 자신의 부모, 조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될 형편에 이르고[6] 경제적

---

3) 차흥봉 외, 「고령자 사회의 장기요양보호」, 서울 : 도서출판 소화, 2000, p.37.
4) 대한매일, 2002. 2. 25, 제24면
5) K.Dychtwald & J.Flower, *Age Wave :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an Aging Americα*, New York : Bantam Books, 1990.

인 노후 대책이 없는 경우 부양부담에 따른 자녀들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과 부모와 자녀들간의 심적부담 더 나아가 저출산, 독신가구와 이혼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정서적·서비스적 부양부담은 가족중심의 그 한계점을 넘어 노인부양 기능의 사회적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보다는 개인의 성공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확대가족 속에서의 상호의존적이었던 관계는 해체되고 가족에 의해 보호를 받던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주 부양자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노인의 부양문제는 사회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7]

서구의 경우와 같이 한 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고령화 보다 우리 나라와 같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고령화는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축소되고, 고령화는 저축의 감소, 투자의 위축, 취업자 수의 감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8]

이에 따라 노인부양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인부양 문제에 수반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부양자인 오늘날 젊은 대학생들이 아직은 가치관이나 자신의 주관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고 노인부양 의식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있겠지만 부모부양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첫째, 우리 나라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의식 태도”

둘째, 우리 나라 대학생의 “노인 부양에 대한 의식 태도”

---

6) 유성호 외, 「노인 복지론」, 서울 :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2000, p.45.
7) 권육상, 「최신 노인복지론」, 서울 : 유풍 출판사, 1999, p.98.
8) 한국개발연구원,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2001, pp.85~87.

셋째, 우리 나라 대학생의 "향후 자신의 노후에 대한 의식 태도"

넷째, 우리 나라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의 의식 태도"를 알아보고 이에 따라 다가올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과 향후 노후대책 수립을 위해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각종 문헌을 통한 이론적 연구와 실태조사를 주로 하는 실증적 연구 방법인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여 <표 1-1>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나라 대학생의 노인부양에 관한 의식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2001년 10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1~3학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강서구, 성북구, 중랑구 등 6개 구와 그 외 서울시에 거주한 대학생을 무작위로 추출한 대학생에 한정하였고, 조사대상자들의 선택적 필요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한시적인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한계와 조사 대상의 인원도 한정된 인원일 뿐 아니라, 미래의 부양자인 대학생의 노인부양 의식조사 이기에 연구의 조사결과를 전국적으로 또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의 응답 자료로 확대하여 일반화시키거나 중소도시, 농촌지역까지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점과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양방법에 있어서 직접 함께 살면서 의·식·주 등 모든 부양을 전담하는 직접적인 부양(협의의 부양)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경제적·정서적·서비스 부양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양하는 간접적인 부양(광의

의 부양) 방법이 있겠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연구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1-1> 연구의 내용

연 구 내 용	문항수
계	52
Ⅰ. 일반적인 특징	8
Ⅱ.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태도	5
Ⅲ.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 태도	8
Ⅳ. 노후에 대한 의식 태도	4
Ⅴ. 노인에 대한 미래의 부양 의식 태도	27
1. 경제적 부양	9
2. 정서적 부양	9
3. 서비스 부양	9

제2장 노인부양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 1 절 노인의 개념 및 특성

1. 노인의 개념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9]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티빗츠(C.Tibbitts)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육체적·심리적·정서적·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으며[10], 에릭슨(E.H.Erikson[11]은 자아의 발달 과제에 따라 인간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마지막 단계를 노년기라 하고 자아 종합과 절망의 감정이 대립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12]

브린(L.B.Breen)은 노인의 개념에는 적어도 생리적·생물학적·심리학적 및 사회의 노화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인은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

---

9) 국제노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란 1944년 창립된 단체로 노년화 및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상호협조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1회 국제노년학회는 1950년 벨기에에서 1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고, 본 연구에 인용한 것은 1951년 7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시에서 열렸던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노인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열거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고경애,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재인용)

10) C.Tibbitts, *Origin, Scope and Field of Social Gerontology*, 1960, p.10.

11) E.H.Erikson, *Chil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1963.

12) 김영숙 외, 「성인 간호학 상권」, 서울 : 수문사, 1996. p.45.

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13]

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노령화의 시기를 60세 이상으로 간주하며, 또 이러한 범주는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흔히 경제활동 인구를 추정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퇴직정년을 정하는 기준의 역연령(chronological age)[14]으로 볼 때 오늘날과 같이 수명이 연장[15]된 시대에서의 시간적 개념에 불과하다.

노인의 개념은 각 학자의 견해에 따라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으며, 노인 개인에게 나타나는 노화의 복합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노인이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며, 이에 따라 특수한 성격을 갖는 사람으로 사회의 인구,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6]

---

13) L.B.Bree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p.147~149.

14) 뉴가르텐(Neugarten)은 미국 노인집단을 ①연소노인(young-old)은 55~65세, ②중노인(middle-old)은 65~75세, ③고령노인(old-old)은 75세 이상으로 분류했으며, 애칠리(Atchley, 1988)은 ①연소노인을 60~74세, ②중노인을 75~84세, ③고령노인을 85세 이상으로 분류했으며, 우리 나라는 만 60세를 회갑년(回甲年)으로, 노인복지법 제9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규정하고 있다.
(최순남, 「현대 노인복지론」, 경기 :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0, p.61.)

15) 2000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72.1세, 여자 79.5세로 80년 이후 20년간 10세가 높아짐(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01)

16) 서병숙, 「노인 연구」, 서울 : 교문사, 1996, p.3.

2. 노인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노인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로 신체 구조의 쇠퇴를 들 수 있는데 피부 및 지방조직의 감소, 세포의 감소, 골격 및 수의근의 약화, 치아의 감소, 심장비대 및 심장박도의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날 뿐 아니라 신체의 외면상의 변화로서 백발의 증가, 두발의 감소, 주름살의 증가, 얼룩반점의 증가, 신자의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또한 만성질환의 상병률 증가를 들 수 있는데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이 나타난다. 즉 생리적 노화현상은 소화기능, 호흡기능, 신진대사기능, 혈액순환, 수면·배뇨기능 등에 영향을 주어 소화기능의 쇠퇴, 폐활량의 감소, 신진대사률 및 속도의 저하, 변비, 수면의 양 및 질의 감소, 피로감, 불면증, 야뇨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리적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고령화 될 수록 만성질환이 발병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며, 흔히 노인병이라 불리 우는 노년기의 신체적 질환은 대부분이 성인병의 연장이며, 노인이 되어 갑자기 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년기의 신체적 취약점이 점차 질병으로 발전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 심리적 특성

연령증가에 따라 지각과정의 속도가 저하되어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지능, 기억력, 학습능력,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등 정신기능의 변화와 생활주기를 통하여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하면서 이전의 습관적인 반응양식을 변화시키므로 성격의 특성도 내향성과 수동성의 증가를 보이면서 감각기능의 쇠퇴로 조심성의 증가와 함께

우울증 경향의 증가현상을 보인다

3) 사회적 특성

노인도 생물학적, 정신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즉 노화의 과정에 있는 노인도 일정한 지위를 획득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17]

제 2 절 노인 부양의 형태

1. 노인부양의 정의

카프란(Kaplan, 1982)에 의하면, 부양이란 정서적 지원과 필요한 자원을 개인에게 제공하고, 개인을 그가 의미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며[18], 버그만(Bergman)[19]은 한 개인을 통해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얻는 과정이 부양이라고 보고 있으며, 웨렌(Warren, 1981)은 물질적 원조, 정서적 지지, 신체적 고통을 보살펴 주는 일, 외로울 때 위로와 시중을 해주는 등의 서비스라고 하였다.[20] 노

---

17) 김치영, 「노인복지 개론」, 부산 : 일오 문화사, 2001, p.33.
18) Kaplan.B.H, Cassel.J.C, and Gore.S,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15, 1977, pp.47~58.
19) Simon Bergman, "The Future of Human Welfare of the Aged", ed, Hajine orimo, Kaoru Shimada, Masami Iriki and Daisaku Maeda, *Recent Advances in Gerontology*, Excerpta Medica, Amsterdam, Oxford Princeton, 1978.
20) 최순남, "노인과 가족부양", 노인복지정책연구,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과제」,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 1997년 추계호 통권 제7호, p.59.

인부양은 부양 주체에 따라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적부양은 정부 및 지역 사회가 개입하는 사회보장 혹은 복지사업 차원의 사회적 부양 형태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과 같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부조제도를 일컬으며, 사적부양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 부양을 담당하는 개인적 혹은 가족적 차원의 부양을 의미한다. 또한 부양방법에 있어서 직접 함께 살면서 의·식·주 등 모든 부양을 전담하는 직접적인 부양(협의의 부양)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경제적·정서적·서비스 부양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양하는 간접적인 부양(광의의 부양)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경제적 부양

경제적 부양(economic caregiving)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의 경제생활 해결 방법은 가족부양, 저축 및 재산수입, 노동 및 사업수입, 연금 또는 사회보장에 의한 급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의 공적부조, 기타 사적 부양으로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부모가 노후에 자녀들에 의해 부양을 받는 부양 중 재산권을 가지고 교환가치로서 묵시적으로 자녀와 협상이 가능했으므로 자녀들에 의해 노후의 경제적 부양에는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물질이나 건강 중 어떤 교환가치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있다.[21] 연령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경제적으로 가족 또는 사회보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노인의 특징[22]이며, 가족부양으로부터 사회부

---

21) 최순남, "노인과 가족부양", 노인복지정책연구,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과제」, 사단법인 한국 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 1997년 추계호 통권 제7호, p.59.

양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23]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노인과 자녀와의 거주·부양형태[24]는 "동거-의존형"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산업사회가 성숙해 가는 가운데 자녀로부터 의존형에서 자립형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미래는 노인의 거주형태와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상적인 것은 "동거-자립형" 또는 "근린별거-자립형"의 형태가 바람직 할 것이다.[25]

3. 정서적 부양

정서적 부양(emotional caregiving)은 노인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부양으로서, 노인의 고독함과 불안을 덜고, 인격적인 대우와 존경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갖게되는 지위와 역할의식, 나아가 사는 보람을 갖도록 하는 주로 정신적 측면의 부양이다.[26]

정서적 부양은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27] 최근에는 독신노인 가구의 증가[28]로 인하여 자녀와 분리되어

---

22)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p.15.

23) 최순남, 「현대 노인복지론」, 경기 :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0, p.596.

24) 노인의 거주형태와 자녀와의 부양관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동거-의존형 : 자녀와 동거하면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원조
②동거-자립형 : 자녀와 동거하면서 노인세대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조달
③별거-자립형 : 자녀와 별거하면서 자녀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④별거-의존형 : 자녀와 별거하면서 자녀로부터 대부분의 생활비를 원조
⑤별거-불안정형 : 별거하며 부모가 원조를 필요로 하지만 원조되지 않는 경우
(本村汎·高橋重宏, 1989, pp.145~146 ; 박재간, 1985, p.27 ; 조추용, 「가족 복지론」 2001, p.332. 재인용)

25) 조추용 외, 「가족 복지론」, 서울 : 창지사, 2001, p.332.

26) 김성순,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p.22.

27) 최순남, 「현대 노인복지론」, 경기 :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0, p.598.

28) 2000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거주 가구는

살고 있지만 서로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근린거주 가족형태[29]가 나타나고 있다. 은퇴로 인한 역할과 관계의 손실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노인기 고독과 소외의 문제를 심화시키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배우자의 상실, 노소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세대간의 대립, 고부간의 심리적 갈등문제 등[30], 그리고 노인 자신의 건강 약화 등은 노인으로 하여금 쓸쓸함과 무의미함, 상실감을 가지게 된다. 노인은 소외와 고독속에서 살며, 가족과 동거해도 별거하는 것 이상으로 대화가 없다고 한다.[31]

4. 서비스 부양

서비스 부양(service caregiving)은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식사, 목욕, 세탁 등의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부양을 의미한다[32].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감퇴와 지능저하로 개인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33] 우리 나라의 실정은 대체로 노인과 함께 동거하는 장남자녀가 노부모의 병간호와 살림 돌보기 등 시

'95년보다 20.0% 증가한 2,618천 가구로 일반가구 증가률(10.4%)보다 높으며, 60~69세 노인부부 가구가 30.7%로 가장 많음(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report/data, 2001.10.16 발표)

29) 이것을 수정확대가족(modified-extended family)라고도 한다. 미국의 노인들의 84.0%는 자신들의 자녀와 한시간 이내의 주거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 중 85.0%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자녀들을 만나는데, 노부모와 자식 쌍방간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게 되는데 자식은 부모를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노부모는 자녀를 가까이 두고 있다는 생각이 정신적으로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30) 고경애,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2.

31) 황진수,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의 고령화사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버이날 기념 학술 세미나, 2002, p.4.

32) 서병숙, 「노인 연구」, 서울 : 교문사, 1996. p.57.

33) 홍숙자, 「노년학 개론」, 서울 : 도서출판 하우, 2001, p.241.

중을 들고 차남이하의 자녀도 부모와 가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항상 쉽게 돌볼 수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화와 핵가족화[34]로 인한 성인자녀의 분가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직장을 따라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므로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으며, 노인을 부양할 자녀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서비스 부양기능이 약화되었다.

제 3 절 노인부양의 문제

1.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노인부양 문제

1) 노인 인구의 변화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의 인구의 변화 과정은 마침내 연령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적 비교를 보면 노령인구 비율이 고령화 사회(7%)[35]에서 고령사회(14%)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일본은 24년이며 한국은 19년으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는 불과 7년에 불과하여 기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

34) "가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 두 명의 성인 남녀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35) 고령화 사회란 증대하는 노인인구를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연령 인구로써 지탱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를 말한다. UN에서는 노년인구 비율(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인구비율이 7% 이상이 되면 高齡化社會(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高齡社會(aged society), 그리고 21% 이상일 때 超高齡社會 또는 後期高齡社會(post-aged society)로 구분한다.

또한 노년인구는 인구통계학적 지표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경향이 <표 2-2>의 평균수명 추이와 같이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평균수명은 75.9세로 미국(77.1세), 일본(80.2세), 이탈리아(78.5세)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196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되어 2030년 84.8세, 2050년 86.2세로 늘어나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세계의 지구촌은 50년 뒤엔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아동인구(14세 미만)를 추월하는 인구의 대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36]

이러한 노년인구의 급성장 추세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생활수준의 개선, 의학의 발달과 보건위생의 개선, 이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1> 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 비교

(단위 : 년)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도달 년도			증가 소요 연수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영 국	1929	1976	2021	47	45
독 일	1932	1972	2012	40	4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한 국	2000	2019	2026	19	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12.

---

36) 중앙일보, 2002. 4. 8, 제11면.

<표 2-2> 평균 수명 추이

(단위 : %)

연도 / 성별	1971	1981	1991	2000	2010	2020	2030	2050
평균	62.3	66.2	71.7	75.9	78.8	80.7	81.5	83.0
남자	59.0	62.3	67.7	72.1	75.5	77.5	78.4	80.0
여자	66.1	70.5	75.9	79.5	82.2	84.1	84.8	86.2
차이	7.1	8.3	8.2	7.4	6.7	6.5	6.5	6.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12.

2) 세대 구성의 변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의 경우 노인문제가 하루하루 일상의 문제가 되며, 만성질환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 외에도 인구고령화 현상이 심화 될 수록 가족에게 의존적인 노인의 수가 증가된다[37]. 실제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주 부양자들의 경우, 신체·심리·사회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산업화의 영향으로 쇠퇴하는 경향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38]되었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소자녀화에 따른 가족원 수의 감소[39],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가족관계도 변화하고, 이혼율의 증가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인력 풀(pool)의 규모가 축소되어 "가족 내에서" 노인부양은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다.[40] 노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에 대

37) 유성호 외, 「노인 복지론」, 서울 :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2000, p.265.

38) 다양한 가족생활 양식의 출현으로 ①맞벌이 가족 ②동거부부 ③무자녀 가족 ④실험 또는 계약결혼 ⑤편부모 가족 ⑥재결합 가족 ⑦군혼 또는 복혼 ⑧동성애 가족 ⑨공동체 거주 ⑩독신자 ⑪비동거(주말) 가족 ⑫원격가족 등 미래 사회에서의 가족 형태가 있다.(이소희 외, 「현대 가족복지론」, 서울 : 양서원, 2001, pp.504~513)

39) 여자 1명당 출생아의 출산률을 보면 1979년(3.0명), 1983년(2.1명), 1986년(1.6), 1997년(1.5명), 1999년(1.4명)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2001.12)

40) 유성호 외, 「노인 복지론」, 서울 :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2000, pp.259~260.

한 인식변화,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경향 등[41]은 결국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고[42], 1세대와 단독가구의 비율은 증가하나 3세대 이상 가족의 비율이 <표 2-3>와 같이 감소하고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도 가족부양이 어려워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3> 세대 구성의 변화

(단위 : %)

구 분	1966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1세대 가구	5.5	8.3	10.7	12.7	14.2
2세대 가구	65.6	68.5	66.3	63.3	60.8
3세대 가구	23.3	16.5	12.2	9.8	8.2
4세대이상가구	2.5	0.5	0.3	0.2	0.2
단 독 가 구	2.3	4.8	9.0	12.7	15.5
비혈연 가구	0.7	1.5	1.5	1.4	1.1

주) 세대는 "조부모+부모+자녀=3세대"와 같이 한 가구에 몇 대가 함께 사는가를 나타냄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2001.12.

3) 노인 인구의 문제점

청장년인구에 대한 유소년 인구와 고령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 80%는 이미 비경제 활동 상태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의 정년제도, 노후의 생

---

41) 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21세기 성주류화를 위한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성인남성의 60.6%, 성인여성의 78.2%가 노부모를 시설에 모시는 것을 찬성(문화일보, 2001.8.10, 제31면)

42) 변용찬, "인구 고령화와 노인문제", 한국 노년학회 편, 「노년학의 이해」, 서울 : 대영 문화사, 2000, pp.46~48.

계대책, 보건문제, 용돈문제 및 여가이용, 노후생활에 있어서의 자녀들과의 동거여부 등 여러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인구의 연령구조 및 부양비 추이를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노인부양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노령층 인구(65세 이상)를 생산연령층 인구(15세~64세)로 나눈 노년부양비[43]는 2001년 10.6%로 2000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노년부양비는 지난 1970년 5.7%에 불과했으나 80년 6.1%, 90년 7.4%, 2000년 10.1%, 2001년 10.6%, 2020년 21.3% 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며, 이는 2000년 생산가능 인구 9.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7명당 노인 1명, 2030년에는 2.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부담을 갖게 된다.

현대사회에서의 노부모부양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부양해야 할 사회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경제적인 노후대책이 없는 경우 부양부담에 따른 자녀들간의 갈등[44], 부모와 자녀들간의 심적부담 뿐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와 노인부양비의 가중으로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며, 노인 인구의 부양이 우리 사회와 가정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년 연령의 단축 및 긴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노후의 경제생활, 노인부양, 노년기 건강, 노인 인력의 재활용, 의료보험, 노인의 여가생활 등 각종 노후 대책이 미흡하여 노인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45] 또한 노인단독세대 가족의 증가는 노인의 가족내에서의 역할변화

---

43) 우리 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00년 현재 영국(24.5%), 프랑스(22.9%), 일본(20.9%), 독일(22.7%), 미국(19.2%) 등 OECD 국가들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중국(9.1%), 인도네시아(6.9%)등 동남아 국가보다는 높은 편이다.(자료 :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2001. p.32.)

44) 최근 가족법 개정에 따라 모든 자녀가 노부모 부양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균등 상속하게 됨으로서 노인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자녀들은 부양을 서로 기피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유성호 외, 「노인 복지론」, 서울 :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2000, p.46)

45) 변용찬, "인구 고령화와 노인문제", 한국 노년학회 편, 「노년학의 이해」, 서울 : 대영 문화사, 2000, p.40.

및 재조정문제, 노인간호문제, 경제적 부양문제 등을 유발 할 수 있고 노인가족 증가는 가족원에 의해서 제공될 수 없는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이다.[46] 우리 나라도 노인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하나둘씩 대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가족부양으로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고 국가나 사회에서는 한발자국 뒷전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노인들에게 있어 평범한 일들이 서서히 집단화가 형성되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회문제로 전개될 것이다.

<표 2-4> 인구의 연령구조 및 부양비 추이(1970~2030)

(단위 : %)

연 도	인구성장률	0 ~ 14세 인구구성비	15 ~64세 인구구성비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노 년 부양비[1]	노령화 지 수[2]
1970	1.99	42.5	54.4	3.1	5.7	7.2
1980	1.57	34.0	62.2	3.8	6.1	11.2
1990	0.99	25.6	69.3	5.1	7.4	20.0
2000	0.71	21.1	71.7	7.2	10.1	34.3
2001	0.63	20.8	71.6	7.6	10.6	36.3
2010	0.38	17.2	72.1	10.7	14.8	62.0
2015	0.18	15.3	72.1	12.6	17.5	82.6
2020	0.04	13.9	71.0	15.1	21.3	109.0
2030	-0.24	12.4	64.6	23.1	35.7	186.6

주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12.

---

46) 장인협, 최성재, 「노인 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17.

2.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부양 문제

1) 가치관의 변화

부모-자녀의 세대간은 시대적인 성장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역연령에 있어서도 20년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세대간에는 사상이나 가치, 추구하는 이상과 방향, 취미 등에서 절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47] 사회가 근대화, 산업화되면서 과거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되고 현대사회의 가정은 부부중심의 생활로 바뀌고, 또한 서구사상과 신교육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갖게된 새로운 사고방식은 세대간의 가치관, 행동양식 등의 차이를 초래하였으며[48], 개인생활 영역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에 따라 정보 및 지식, 웹 생활양식의 일상화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더욱 확산·심화시켰다. 생활상이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획득 방안의 변화, 노인과 부양인구의 지리적 또는 사회 심리적 분리, 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의 확대,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49]

따라서 과학 기술의 발달은 "능률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익의 극내화 현상은 "능력 없는 자의 도태"를 의미하게 되므로 점점 인정과 정서가 메말라 가고, 이해 타산 중심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다.[5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도 옛날의 가부장적 권위는 실추되고, 무능력, 무기력한 존재로서 비생산적인 위치로 전락하게 되면서 가정과 사

---

47) 최순남, 「현대 노인복지론」, 경기 :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0, p.290.
48) 박재간 외,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연구, 「노인생활 실태 및 정책방향」,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 1996년 추계호 통권 제4호, p.19.
49) 조추용 외, 「가족 복지론」, 서울 : 창지사, 2001, p.329.
50) 황진수, 「현대 복지 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p.269.

회에서 밀려나고 있다.[51]

또한 자녀의 노부모 부양책임[52]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에서 <표 2-5>와 같이 장남 혹은 아들에 의한 부양은 점점 낮아지고 아들·딸 모두 또는 능력 있는 자녀에 의한 부양의 태도를 보이는데는 사회적으로 평등의식과 성별차이가 변화하고 사회는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53]

<표 2-5> 노부모의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

구분 / 연도	가족					스스로 해결	사회및 기타
	장남	아들들	딸들	아들·딸 모두	능력있는 자녀		
1983	22.1	21.7	0.8	27.1	-	20.5	7.8
1988	25.2	17.8	0.5	35.8	-	15.8	5.9
1991	18.3	13.8	0.4	46.2	-	15.4	5.9
1994	19.6	11.4	-	29.1	27.2	9.9	2.9
1998	22.4	7.0	0.5	14.5	45.5	8.1	2.0

자료 : 통계청, "사회 통계조사", 1999.12. p.143.

또한 가족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인은 모든 자녀가 공동부양 재산상속법에서도 장남 위주의 상속관행으로부터 자녀가 공히 평등한 상속을 하도록[54] 되어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장남이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책임

---

51) 장인협 외, 「사회 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 출판부, 1999, p.318.

52) 민법 제826조제1항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민법 제974조제1호 :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 민법 제975조 :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4호 : 부양의무자라 함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고 사법과 공법에서 성문화하고 있다.

53)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pp.179~180.

이 서로 분담하는 장점도 있지만, 노인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자녀들은 부양에 대한 주책임을 서로 미루거나 기피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시대적 환경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 가치관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생계부양을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식이 부양하는 경우가 점점 낮아지고 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만 보아도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고 눈치나 보면서 사는 것 보다 경제적 자립 능력만 되면 마음 편하게 따로 독립하여 살기를 더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부모의 생계부양

(단위 : %)

구분 / 연도		자식의 부양						스스로 해결	기타
		장남	장남이 외아들	아들들	딸	딸들	아들과 딸 들		
1994	62.1	33.1	7.6	8.7	1.6	-	11.1	37.6	0.3
1998	58.2	27.0	10.9	8.9	1.4	0.4	9.6	41.6	0.2

자료 : 통계청, "사회 통계조사", 2000.12. p.142.

2) 가족 구조의 변화

무어(Moore, 1967)는 가족은 최초의 인간관계의 원형이며, 개개인의 삶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집단이며, 나아가 가족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사랑과 효는 타인에 대한 仁慈의 근본이 된다고 보았다[55]. 모리오카 라모치츠키는 가족이란 부부·친자·형제 등 소수의 근

54) 민법 제1009조제1항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90.1.13)

55) 최순남, "노인과 가족부양", 노인복지정책연구,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과제」,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1997년 추계호 통권 제7호, p.61.

친관계자를 주요성원으로 하며, 성원상호간의 깊은 감정으로 맺어진 제1차적 복지추구 집단이라고 하였다.[56]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집단으로 정적인 구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생활양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57] 또한 가족은 혈연이나 결혼으로 결합된 성인집단으로서 같이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갖는 집단으로 정의되고 있다.[58]

그러나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59]를 겪으면서 <표 2-7>와 같이 출산력 저하에 따라 가구원수가 감소하였고, 소가족화, 친족가구의 비율감소, 핵가족비율의 증가[60], 1인 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61],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과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의 약화와 가족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62] 산업화 과정 이후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소비중심적인 것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기능의 변화는 구성규모를 축소시키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핵가족의 형태에서는 노인의 지위가 배제되었고, 부부와 자녀들을 우선하는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핵가족화의 추세는 효도, 동거, 존경, 부양의식의 약화, 노인의 권위약화와 도시화, 산업화, 경제적 빈곤까지 겹쳐 노인문제는 개인의

---

56) 조추용 외, 「가족 복지론」, 서울 : 창지사, 2001, p.13.
57)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 이해」, 서울 : 학문사, 1999, p.299.
58) 황진수, 「현대 복지 행정론」, 서울 : 대영 문화사, 1999, pp.269~270.
59) 1960년대 후반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도시인구 비중은 1949년 17.2%에서 1995년 78.5%로 도시거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
60) 2000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일반 가구 중 2세대가 함께하는 가구가 60.8%, 1인가구 15.5%, 1세대가구 14.2%, 3세대가구 8.2%이며, 혈연가구중 핵가족은 82%로 이중 전형적인 핵가족(부부+미혼자녀) 가구는 57.8%이며, '95년보다 부부가구가 26.2%증가함(자료 : 통계청,http://www.nso.go.kr/report/data/, 2001.10.16 발표)
61) 문화관광부, 「청소년 백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2001, p.24.
62) 김승권 외,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01. p.81.

문제를 떠나 가정, 사회문제로 대두[63]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조의 변화는 대가족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으며[64], 핵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자녀와 헤어져 노부부나 노인 혼자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 부모부양 여부를 알아보면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 경우가 66.0% 이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는 15.7%, 따로 사는 경우는 44.9%로 나타나 있다.

<표 2-7>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및 평균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 연도	1930	1940	1955	1970	1980	1990	1995	2000
가구원수	5.30	5.34	5.45	5.24	4.62	3.71	3.3	3.1
자녀수	-	-	-	-	-	-	1.31	1.17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 2001. 10.16.

<표 2-8> 실제 부모부양 여부(가구주)

(단위 : %)

구분 \ 연도	가구주	부모 안계심	부모 계심	부모동거 여부		가구주 부모의 동거자					
				같이살지않음	같이살고있음	자녀	장남	장남이외의 아들	딸	따로삶	기타
1994	100	31.8	68.2	-	-	54.7	36.3	14.9	3.5	44.9	0.4
1998	100	34.0	66.0	84.3	15.7	54.5	30.8	19.4	4.3	44.9	0.5

자료 : 통계청, 「사회 통계조사」, 1999.

63) 허정무,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충북 : 도서출판 협신사, 2000, p.6.
64) 조추용 외, 「가족 복지론」, 서울 : 창지사, 2001, p.329.

3) 경제 구조의 변화

우리 나라의 산업별 구조는 1차 산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65]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된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는 인구이동을 유발시켰고, 가족의 분화를 초래하였다. 농업을 중심으로 한 定住사회에서는 누대의 동일한 직업을 이어받아 살아왔으나, 공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는 "변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역간 이동이 잦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기민성과 국제화 등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노인의 능력과 경험은 이러한 기동력 사회에서는 특별한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66], 또한 오늘날은 컴퓨터의 발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경영환경의 급변은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옛 지식을 가진 노인의 둔한 센스로는 젊은이들을 따라갈 수 없다. 산업사회의 가치관은 끊임없는 과학기술의 혁신에 있으며, 노인세대는 현대사회의 기술에 밀리고, 효율과 능률을 숭상하는 산업사회의 가치관에 밀려서 사회의 역할들을 젊은 세대에 이양하고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빈곤층, 고독한 계층으로 전락되어가고[67],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이 증가[68]하고 있다.

3. 노인부양과 관련 제문제

1) 노인의 경제적 부양 문제

---

65)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란 책에서 제1의 물결은 농경사회(~60년대), 제2의 물결은 산업사회(60~80년대)라면 제3의 물결은 정보화사회(90년대 이후~)라도 말하고 있다.
66) 황진수, 「현대 복지 행정론」, 서울 : 대영 문화사, 1999, p.270.
67) 최순남, 「현대 노인 복지론」, 경기 :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0, pp.335~347.
6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백서」, 2000, p.177.

우리 나라의 노인세대는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농경사회에서 자라면서 가난을 경험했고 이 가난은 자녀세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노력과 재산을 소모했기 때문에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축적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70%의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산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경제적 문제가 29.3%로 가장 크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제적 안정은 인간의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취미생활을 즐길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노력해온 보다 높은 차원의 자기실현을 위해 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노인들은 그가 비록 젊은 시절에 자기 실현을 위해 노력했을지라도 노인이 되어 생리적 욕구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69]

우리 나라 노인이 특히 빈곤한 원인은 조기 은퇴,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자녀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로 저축이 거의 불가능했고 저축할 여력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자녀의 결혼이나 주거 마련에 사용함으로 인해 <표 2-9>에서 보듯이 노후준비가 되어있는 경우가 53.3%, 노후 준

<표 2-9> 노후준비 방법(가구주)

(단위 : %)

구분 / 연도	유	무	노 후 준 비 방 법						
			보험	적금	연금	계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1988	35.2	64.9	8.6	9.4	11.5	1.3	3.6	0.6	0.2
1991	39.0	61.0	11.2	10.4	13.4	0.7	2.9	0.3	0.1
1994	53.0	47.0	16.0	17.8	15.9	0.6	2.6	0.1	0.0
1998	53.3	46.7	-	20.5	29.2	0.1	3.4	0.1	-

69) 최순남, 「현대 노인 복지론」, 경기 : 한신대학교출판부, 1995, p.367.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0.12.

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46.7%로 노후 대책을 하는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노후 준비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2) 노인의 건강부양 문제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86.7%)가 만성퇴행성 질환[70]을 앓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약 35%가 일상생활수행능력이[71], 50% 이상이 수단적 일상생활능력[72]이 불가능하여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 추이에 따라 치매, 중풍노인의 증가뿐 아니라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가족 규모의 축소, 직장 여성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노인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가족, 친척 등의 사적 부양장치에 의해 쉽사리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로[73] 일반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 <표 2-10>와 <표 2-1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의료비 과다로 부양가정에 경제적 타격을 주게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은 노환으로 오랫동안 와상중인 부모를 봉양하는 장기보호 부양의무이다.[74]

---

70) 도시 85.3%,농촌 89.1%, 남자 77,4%, 여자 92.2%의 만성질환 유병율을 앓고 있다.(자료 : 보건복지부, 「2002년도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2002, p.4.)

71) 일상생활수행능력(ADL:Activites of Daily Living) :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을 말한다.

72)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Instrumental Activites of Daily Living) : 일용품 사러가기, 전화걸기, 버스·전철타기, 가벼운 집안일 하기 등을 말한다.

73) 이소희 외, 「현대 가족 복지론」, 서울 : 양서원, 2001, p.489.

74) 성규탁, "미국의 부모부양 책임론", 노인복지정책연구, 「외국의 노인복지 관련 법」,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1996년 추계호 통권 제3호, p.217.

<표 -10> 의료보험에서의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연 도	전체진료비 (증가지수)	노인진료비 (증가지수)	노인의료비 구성비(%)
1985	583,278(100)	27,515(100)	4.7
1990	2,219,773(381)	239,173(869)	8.2
1995	5,977,453(1,025)	728,137(2,643)	12.2
2000	13,140,959(2,233)	2,289,300(8,320)	17.4

자료 : 보건복지부, "2002년도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2002, p.4.

<표 2-11>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98)

(단위 : %)

부담 인식 / 연도	보험료 지불함						지불 안함
		부담많음	약간부담	보통임	거의없음	전혀없음	
1998	85.2	20.2	44.5	27.7	6.8	0.9	14.8

자료 : 통계청, " 한국의 사회지표", 2000.12. p.404.

3) 노인의 심리부양 문제

노년기에 주로 부딪치는 상실은 배우자나, 친구, 친족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 상실과 정년퇴직이나 노인에 대한 경시, 사회적 지위나 특권의 상실 같은 사회적 상실이 있다.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기대감, 가치관과는 다른 현실과 고정적으로 가지게 되었던 수입의 단절, 공적지위와 권위의 상실, 대인관계의 축소 등에서 오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는 소외와 고독감을 안겨주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제 4 절 각 국의 노인부양 정책

1. 우리 나라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1년 12월 현재 3,579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7.6%이며, 2020년에는 15.1%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에 의한 노부모 부양형태가 지금까지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부모에 대한 사랑과 애정, 보은, 책임·의무, 가족화합, 회생이 부모부양의 이유였다.[75] 서구나라들에 비하여 가족부양의 전통을 유지해오고는 있지만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시화·핵가족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장남이 노부모를 모시는 관습이 점차 약해지고 자식들이 부양책임을 서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부모부양 책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장남중심에서 아들·딸 모두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인들 스스로 노후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다.[76]

정부는 노인 봉양의식 정책[77]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점차 쇠퇴해 가는 부모봉양의식을 높이고 전통적 가족제도와 경로효친 사상을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경제적 가족부양 정책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세 공제에 따른 노인 인적공제 3천만원과 소득세 공제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로 60세(여 5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에게 년 100만원, 경로우대 공제에 따른

---

75) 박재간 외,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 나남 출판, 1995, pp.295~302.

76) 최순남, "노인과 가족부양", 노인복지정책연구,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과제」,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1997년 추계호 통권 제7호, pp.74~83.

77) 보건복지부, 「2001 보건복지 백서」, 서울 : 문영사, 2001, pp.102~103.

65세 이상 노인 부양자에게 년 50만원, 60세(여 · 55세)이상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가 세대를 합치기 위하여 주택을 팔 경우(3년 이상거주, 1년 이내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또한 노인 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제도 시행에 따른 60세 이상 노인은 이자소득세 감면 및 세금우대저축 가입 한도액을 확대하고 있으며, 1986년부터 노부모 봉양에 따른 공무원에게 1인당 월 1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개인주택의 신축, 구입 및 개량시 주택자금 1,000만원을 할증 지원하고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효행자에 대한 특례입학제도를 확대하여 1999년 25개 대학에서 2000년 39개 대학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으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하는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에게 월 보조액 28~53천원을 임대료로 보조지원하고 있다.[78] 1997년 7월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 연금제를 실시함으로써 실시한 그 해에 265만명, 2001년도에는 580만 명에게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금 지원과, 4대 보험 확충 등 사회안전망 체계 완비를 위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함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 보장과 생계비 지급대상 확대와 1999년 4월부터 전국민 연금제도 완성으로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연금 가입자 수가 2001년 1,628만 명에 이르고 현재 77만 명에게 특례 노령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

78)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3호, 규칙 제3241호, 2002.2.25 공포.

2. 영 국[79]

영국은 지역에 따라 가족부양의 형태도 상당히 다르나,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보면 영국은 절대적 핵가족 형태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 가족은 노인에게 가장 성공적인 비공식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 노인가족의 2/5는 노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으며, 상호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또한 절반 이상의 노인들은 1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으나 40% 이상의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족의 재구성, 가족 크기의 감소로 인한 가족 보호자 수의 부족 등으로 가족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어 국가적인 지원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노인보호자 가운데 2/3가 여성이고 특히, 딸인 경우는 자기 부모를 돌보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노인보호를 위한 책임은 오래 동안 가족이었으며 공공정책 부문의 역할은 극히 미약하며 많은 가족들의 노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아직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가족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적인 메카니즘이 없어서 국가가 역기능 가족(malfunctioning family)에게 개입하여 통제할 힘이 없다. 또한 그런 힘을 국가가 공공연하게 추구하는 것도 시민정신에 맞지 않는다. 즉 부양가족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통합유럽의 정부보조금법은 대단히 쇼킹하지만 자원봉사의 기풍이 높은 영국으로서는 그다지 유용한 법률안도 아니며 또한 부양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을 직접 제재하는 방법도 없는 형편이다.

영국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법안의 정신을 국가가 서비스 자체를 제공

---

79) 최성재, "유럽 여러 나라 노인의 가족부양정책", 노인복지정책연구,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과제」,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 1997년 추계호 통권 제7호, pp.167~241.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대신 가족들과 지역사회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골자이다. 상용봉사와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마련하고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봉사의 종류와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빈곤선 이하의 노인들에게는 정부보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서 민간부문의 보호서비스를 최대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미 국[80]

미국 사회에는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외롭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여 왔으나, 노인부양에 있어서 가족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은 자녀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81] 부양하고 있는 이유로 의무감, 애정, 보은[82]으로 일반적으로 80.0% 이상의 노인부양 책임을 가족 특히, 장성한 자녀와 배우자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미국은 지난 30여년 동안 노인들의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발달시켜 왔다.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라고 불리 우는 노령, 유족, 장애연금 및 노인을 위한 의료보험을 지칭하며[83],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

---

80) 박영란, "미국의 노인부양 지원정책", 노인복지정책연구,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과제」,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 1997년 추계호 통권 제7호, pp.127~145.

81)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p.16.

82) 박재간 외,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 나남 출판, 1995, pp.289~290.

83) 원영희,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노인복지정책연구, 「21세기 노인복지정책

법(The Social Security Act)에 근거할 노령연금, 1974년부터 실시된 보충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그리고 1965년에 제정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Medicare) 및 빈민을 위한 의료부조 등의 입법조치를 통해 미국은 노인들을 위한 소득 및 의료보장 체계를 형성시켜 왔던 것이다. 아울러 1965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The Older Americans Act)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은 전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 의료보장제도 및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적영역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의 관리들은 노인문제를 비롯한 취약집단의 문제를 연방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민간영역, 가족 및 개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가 민간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을 이양하는 추세 속에서 1990년대에는 서비스 관리체계와 같은 비용절감정책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노인의 이익옹호 및 자조집단의 활동과 가족부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부양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가족부양자들은 우울증, 불안감, 고립감, 죄책감, 분노 등 고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노인의 부양에 있어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이 결코 가족의 부양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 노인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직장으로 복귀하며,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가족이 없는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유기, 갈등 등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가족이 없어도 친구나 이웃을 통

방향」,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1999년 통권 제14호, p.69.

해 도움을 받는 노인도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미국에는 여러 주에 부모부양에 관한 법(filial support statutes)이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가 노부모의 부양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거의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은 전업주부들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와 수면연장, 여성의 취업증가가 이와 같은 노인부양 양질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기존 가족부양 형태의 한계가 현실화됨에 따라 비공식적 부양체계의 장점과 지속성을 유지 및 개선시킬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부양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을 제고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하에 노부모 동거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노부모 부양수당의 지급, 가족간호 휴가제 등의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비롯하여 재가복지서비스와 휴식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는 과거에 가족과 이웃이 행하던 노인을 위한 사회경제적인 서비스의 대부분을 국가와 공공기관이 대행하고 있다. 가족의 성격이 계속 변해가는 현대 미국사회에서 가족주의가 쇠퇴하고, 가족의 크기가 축소되고 가족의 이동이 심해지고, 여성의 직장 진출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변질시킨 것이다. 가족은 노인부양의 "자연적이고도 당연한 부양자"로 가족과 아울러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민간단체들도 자원봉사 방식으로 노인 부양에 기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84] 가족은 곧 노인을 위한 주요 부양자로서의 위치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다만 노인부양을 잘 수행하도록

---

84) 성규탁, "미국의 부모부양 책임법", 노인복지정책연구, 「외국의 노인복지관련법」,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 1996년 추계호 통권 제3호, pp.218~219.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4. 일 본[85]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특히 노인에 대한 가족규범이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내 노인부양 의식면에서도 세대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가족구성형태는 전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크게 변모하였으며 3세대 가족이나 확대가족의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세대구조의 변화에서도 특징적인 것은 단독세대 비율의 증가, 고령자 세대 중 부부단독세대가 대폭적 증가, 고령여성의 자녀와의 동거율 증가, 고령기 시기에 와서 자녀와의 동거율 상승, 딸과의 동거 경향 등이다.

일본인의 대다수가 가족 붕괴의 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고도의 경제성장이 종말을 고하는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로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농현상,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핵가족이 증가한 가운데 가족의 의식과 노부모 부양의식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민법 제730조에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상호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다" 라고 부양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보호정책 변화를 보면 가족보호의 단계(1945년에서 1962년), 시설보호지향 단계(1963년에서 1973년), 가족보호회귀 단계(1974년에서 1980년), 민간부문보호지향 단계(1981년), 재가보호지향 단계(1986년부터 현재까지)로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수명이 연장되고 치매 등의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

85) 서병숙, "일본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연구,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과제」,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 1997년 추계호 통권 제7호, pp.189~222.

장수하는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의식이 변화함으로, 종래의 가족 일변도의 재가보호에서 자기가 살던 주거에서 또한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동거하는 가족구성원의 지원, 보호, 간호를 받는 일본식 재가보호로 바뀐것이다.

제 5 절 선행연구

이영진[86]은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면 누구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아들·딸 구별 없이 자녀 중 선호(76.5%), 노인부양 의식의 전망에 관해서 노인과 국가가 36.8%로 젊을수록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노인으로 갈수록 가족의 역할(30.8%)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의 경제적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노인은 자녀보조 등의 비공식적 관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기성세대와 대학생세대는 연금이나 보험 등의 공식적인 관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인혜[87]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에서, 대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하여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가 부정적이었으나,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에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다른 형제 자매가 없는 외동인 경우가 둘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보다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에 긍정적이며, 고등학생인 경우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는 동거경험이 있는

---

86) 이영진,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세대별 비교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87) 임인혜,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경우에 비하여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임장순[88]은 노인에 대하여 대체로 바람직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노인상을 현재의 노인들보다 이상적으로 희구하고 있으며, 동거학생이 대부분 더 긍정적이었으며, 노인들도 직업이 필요한데 현행 퇴직연령은 빠르고 노후생활을 위한 적당한 용돈을 드려야 하며, 자식들이 부양책임을 가지고 부모를 모셔야 하고 노부모의 재산은 모든 자녀가 균등분배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동거학생이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재산의 균등분배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도시학생이 노인들의 직업에 대한 필요성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윤금선[89]은 초·중·고등학교 2학년학부모 각 100명과 대학생1,2학년 100명 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에서 부모님과의 동거에 대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부모님을 모시며, 노부모와의 동거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경제적 여유가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노부모의 부양책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통념과 달리 부모님과 마음이 가장 잘 맞는 자녀가 모셔야 하며, 부모님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당연한 일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을 모시는데 어려움으로는 어른과의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손용섭[90]은 대학생 452명을 대상으로 노부모부양의 책임의식이나 부

---

88) 임장순, "노인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89) 윤금선, "부모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90) 손용섭, "노인부양 문제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 대전직할시 대학

모의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부모가 연로하시게 되면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 내용은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진다(56.7%), 형편에 따라 책임진다(34.9%)로 나타났다. 본인들이 결혼한 후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대한 반응은 함께 살겠다(62.0%),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식들과의 동거 여부에 대하여 나타난 반응은 함께 살고 싶다(30.0%), 여건이 허락하거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따로 살겠다(62.2%), 즉 많은 학생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과의 동거를 원치 아니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노년기에 있을 생활에 대해 정립이 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노대호[91]는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조부모와 동거 경험유무에 따른 노인부양 의식도는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동거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부양의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른 노인부양 의식도는 귀찮은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학생들과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은지[92]는 부양예비세대 84명, 부양세대 109명, 피부양세대 78명 총 271명으로부터 현재 자신이 노인이 된다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노인상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만을 비교해 보면, 성별, 연령별, 최종학력별, 평균월수입별, 현재 세대형태별 미혼일 경우의 동거형태별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부양에 대한 적절한 책임자로는 성별에

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91) 노대호,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 청주시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92) 심은지, "노인부양 의식의 세대간 비교연구 : 부양예비세대, 부양세대, 피부양세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의한 차이, 연령별에 의한 차이, 최종학력에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정구[93]는 자녀와 동거노인 81명, 자녀와 별거노인 68명 총 150명으로부터 연구결과 피부양자인 노인들이 가족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하여 갖는 부양 기대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녀와 동·별거 형태변화의 추이를 보면 장남부부와 함께 사는 형태가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 결혼한 딸 또는 다른 자녀와의 동거가 늘고 있다. 특히 노인들만의 세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동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47.6%), 별거하는 노인의 동거 희망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45.6%), 자녀와 별거 동기는 노인 자신이 불편해서(39.7%), 노인의 노후부양 책임으로 동거노인은 가족과 자녀 책임(47.5%), 별거 노인인 경우 노인 자신의 책임(44.1%)으로 나타났다.

고경애[94]는 서울 300명, 농촌 300명 총 600명(남300,여300)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출생순위에 따른 노인부양 의식도는 장남장녀의 노인부양 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자신의 노후에 대한 태도에서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집단일수록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성혜[95]는 부산시 대학생 499명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에 있어서 결혼 후 부모와의 동거의사는 남학생 34%는 매우 찬성, 여학생

---

93) 손정구, "노인의 부양기대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노인의식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94) 고경애,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95) 조성혜, "대학생 태도분석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은 찬성도 반대도 않함이 38%로 남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래 자녀와의 동거의향에 있어 남학생은 61%가 같이 살겠다, 여학생은 67%가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부모가 자립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태도에서 남학생(66%), 여학생(57%) 모두 반드시 부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석주[96]는 중학교 고등학교 602명과 기혼자 313명 총 915명을 대상으로 부모부양 방법에 있어 향후 따로 살고 싶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생활하는데 불편(43.7%)", "세대차로 인한 갈등(16.3%)"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 태도에 대하여는 "본인 스스로 독립하여 생활하겠다(41.5%)"고 나타났다. 향후 본인의 노후 형태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 스스로 살아갈 것이다(54.2%)"고 응답하고 있다.

김윤정[97]은 대학생 319명을 대상으로 부양책임에 대한 질문에 "아들과 딸 모두"가 62.4%로 "장남이 전적(4.1%)"으로 모셔야 한다는 과거의 의식과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송효석[98]은 55세 이상 동거노인 101명과 별거노인 75명 총 176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대다수의 동거노인들은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34.5%) 인식을 하면서도 자녀의 눈치를 살피면서(49.5%) 살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별거해서 살기를, 동거노인들 중 19.4%의 노

---

96) 고석주, "우리 나라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 청소년과 기혼자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97) 김윤정, "대학생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98) 송효석, "가족의 노인부양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자녀와 별거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별거노인 중에서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할 때 장남부부(65.4%), 딸 내외(21.2%)로 장남 의존적인 풍토의 반영과 노후에는 딸이 정서적 부양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방법

1. 연구의 표본

본 연구는 2001년 10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1~3학년 대학생[99]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청과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 2001년 12월 27일부터 2002년 2월 7일 기간동안에 30일간 실시하는 2001년도 겨울방학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신청하여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되어 배치된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표집에 있어서 강남구청·서초구청·강서구청·종로구청·성북구청·중랑구청 등 6개 구청과 서울특별시청 등을 임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조사대상자 남성 213명, 여성 437명 총 650명의 지역별, 성별 분포는 <표 3-1>과 같다.

---

99) 2000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2000.11.1.일 현재 우리 나라 대학생은 1,842천명이다.(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report/data/, 2001.10.16 발표)

<표 3-1> 지역별 및 성별 분포

(단위 : 명)

성별 / 거주지역	성별				계	
	남성		여성			
	N	%	N	%	N	%
계	213	32.8	437	67.2	650	100
강남구	19	29.7	45	70.3	64	9.8
서초구	31	33.7	61	66.3	92	14.2
강서구	29	31.2	64	68.8	93	14.3
종로구	25	25.8	72	74.2	97	14.9
성북구	28	29.5	67	70.5	95	14.6
중랑구	42	53.2	37	46.8	79	12.2
서울시	39	30.0	91	70.0	13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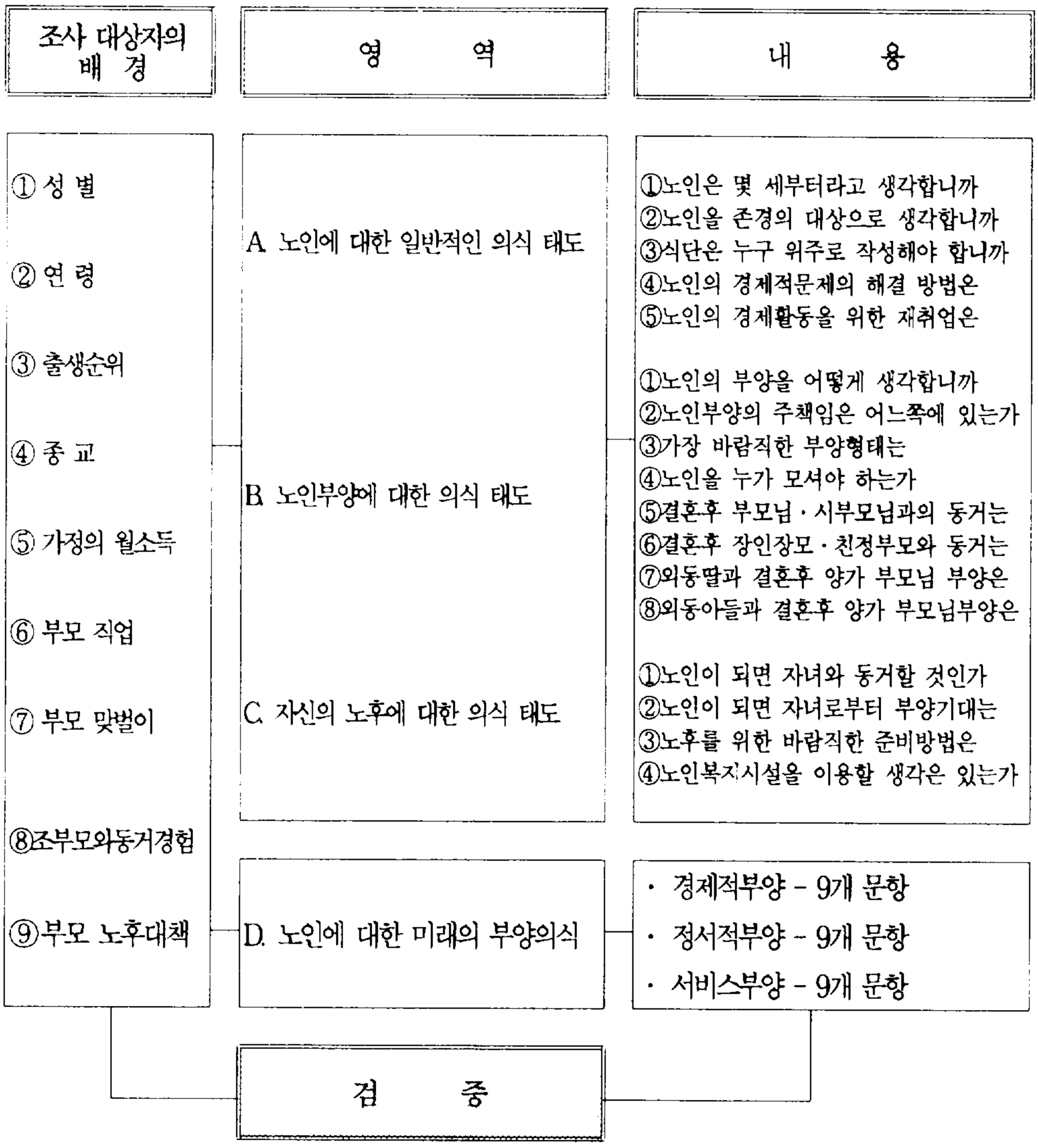
2. 연구의 모형

우리 나라 대학생의 노인부양에 관한 의식 조사의 배경으로 성별, 연령, 출생순위, 종교, 가정의 월소득, 부모의 직업, 부모의 맞벌이, 조부모와 동거경험, 부모의 노후대책 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분석의 모형을 <그림 3-1>과 같이 작성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설문지 자료 수집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분석한 조사분야는 4개의 영역인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태도에 따른 5개항의 내용,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 태도에 따른 8개항의 내용, 자신의 노후에 대한 의식 태도에 따른 4개항의 내용, 노인에 대한 미래의 노인부

양 의식에 따른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의 각각 9개항으로 분석항목의 내용을 설정하여 T-검증,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 대학생의 노인부양 의식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의 모형이 설계되었다.

<그림 3-1> 연구의 모형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02년 1월 15일부터 2002년 2월 4일까지 본 연구 목적을 위하여 설문은 기존의 노인부양 문제에 관한 연구논문 임인혜[100], 고경애[101], 노대호[102], 송현애[103]박성수[104]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고 좀더 보충이 필요한 문항은 직접 고찰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본 연구자가 조사대상자들에게 직접 배부 후 작성하게 하거나(성북구), 각 구청을 방문하여 동료 직원에게 사전 설명한 후 배부케하여 무기명으로 대학생들 자신이 직접 설문지에 기재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한 800부의 설문지 중 685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가운데 응답이 불충분한 35부의 자료는 제외시키고 650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10.1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단순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대학생의 노인부양 의식도 분석을 위하여 설정된 각 변수별 가설의 검증에는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분산분석법(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사용하였고, 사후 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와 LSD를 이용하였다.

---

100) 임인혜,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101) 고경애,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102) 노대호,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 청주시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03) 송현애,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04) 박성수, "노인부양 형태와 부양의식에 대한 연령별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제4장 결과의 분석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노인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발달에서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문제의 특성과 원인을 바로 인식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105]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나라 대학생의 노인부양에 관한 의식조사를 분석하기에 앞서 표본의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출생 순위별 분포, 종교별 분포, 현재의 생활정도, 부모의 직업분포, 부모의 맞벌이 가정 분포,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분포 및 현재 부모의 노후대책 분포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을 파악한 후에 노인부양의 의식조사 분석에 들어가고자 한다.

1. 성별 분포

본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분류는 <표 4-1>와 같으며, 남성은 32.8%, 여성은 67.2%로 구성되어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표본으로 추출된 것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상 쉽게 구하고 또한 행정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이 지원하여 각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105) 김영숙, "중·고등학생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 노년학」, 제21권 3호, 2002, p.76.

<표 4-1>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

구 분	남 자		여 자		계	
	N	%	N	%	N	%
계	213	32.8	437	67.2	650	100

2. 연령별 분포

조사대상자의 연령 집단별 분포를 보면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19세가 23.1%, 20~24세 72.8%, 25~29세가 4.2%로, 20~24세 대학생이 72.8%로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대학생 1~3학년생을 표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4-2>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구 분	17~19세		20~24세		25~29세		계	
	N	%	N	%	N	%	N	%
계	150	23.1	473	72.8	27	4.2	650	100

3. 출생 순위별 분포

조사대상자의 출생순위 분포는 <표 4-3>와 같이, 장남·장녀가 47.8%, 차남·차녀가 18.2%, 막내가 29.2%, 독자(외동)가 4.8%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사대상자가 출생한 1980년도 인구동태율의 가구원 평균수는 4.62명, 평균 자녀수는 2.6~2.7명에[106] 따른 1남 1여 중심의 저

106)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4, p.56.

출산율 때문일 것이다.

<표 4-3> 조사대상자의 출생 순위별 분포

구분	장남·장녀		차남·차녀		막 내		독자(외동)		계	
	N	%	N	%	N	%	N	%	N	%
계	311	47.8	118	18.2	190	29.2	31	4.8	650	100

4. 종교별 분포

조사대상자의 종교별 분포를 보면 <표 4-4>와 같이, 기독교 38.6%, 천주교 12.0%, 불교 11.8%, 무종교가 36.0%를 나타내고 있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36.0%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개방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의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종교가 오히려 자유 분방한 활동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표 4-4> 조사대상자의 종교별 분포

구분	불 교		기독교		천주교		유 교		기 타		없 음		계	
	N	%	N	%	N	%	N	%	N	%	N	%	N	%
계	77	11.8	251	38.6	78	12.0	1	0.2	9	1.4	234	36.0	650	100

5. 가구 월평균 소득별 분포

조사대상자들의 가구 월평균소득을 보면 2백만원 이하가 40.2%, 4백만원 이하가 45.8%, 6백만원 이하가 8.0%, 8백만원 이하가 1.1%, 8백만원

이상이 1.1%로 <표 4-5>와 같이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가구 월평균 소득의 분포는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 1999년 월평균 소득은 2,224천원과 서울특별시의 1999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251천원 이었다.[107]

<표 4-5> 조사대상자의 가구 월평균 소득별 분포

구분	2백만원이하		4백만원이하		6백만원이하		8백만원이하		8백만원이상		모름/무응답		계	
	N	%	N	%	N	%	N	%	N	%	N	%	N	%
계	261	40.2	298	45.8	52	8.0	7	1.1	7	1.1	25	3.8	650	100

6. 지역별 분포

조사대상자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서울시 전역이 20%, 종로구가 14.9%, 성북구가 14.6%, 중랑구가 12.2%, 강남구가 9.8%, 서초구가 14.2%, 강서구가 14.3%로 <표 4-6>와 같이 분포되어 있다.

<표 4-6>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구분	서울시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계	130	20.0	97	14.9	95	14.6	79	12.2	64	9.8	92	14.2	93	14.3	650	100

이와 같은 지역별 분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강남구·서초

---

107)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보면 1995년 1,911천원, 1998년 2,133천원, 1999년 2,224천원이며(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0, p.162.), 서울특별시 근로자 가구의 1999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320천원이다(자료 : 서울특별시, "제40회 서울통계연보", 2000, pp.470~471.)

구와 서울의 도심지역인 종로구 그리고 서울의 북부지역인 성북구·중랑구와 서부지역인 강서구로 본 연구자가 임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이다.

7. 부모의 직업별 분포[108]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직업은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직이 33.7%, 서비스·판매직이 28.3%, 전문직이 21.8%, 단순노무직이 7.5%의 순위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별 분포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발달과 도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이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7>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직업별 분포

구분	단순노무직		사무직		서비스·판매		전문직		무 직		무응답		계	
	N	%	N	%	N	%	N	%	N	%	N	%	N	%
계	49	7.5	219	33.7	184	28.3	142	21.8	36	5.5	20	3.3	650	100

어머니의 직업별 분포는 <표 4-8>와 같이 주부가 68.2%(443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업이 16.9%, 전문직 종사자가 5.4%, 단순노무직이 4.8%, 사무직이 4.5%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아직은 주부가 절대 다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업도 단순한 서비스·판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8) 서울특별시 2001.4/4분기 직업별 취업분류를 보면 입법자·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0.6%,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18.9%, 사무직원 18.9%,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37.3%, 농업 및 어업수련 근로자 0.2%, 기능원·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2.1%, 단순노무직 근로자 12.0%로 나타났다. (자료 : 서울특별시, "제41회 서울통계연보", 2001, pp.144~145.)

<표 4-8> 조사대상자 어머니의 직업별 분포

구분	단순노무직		사무직		서비스·판매		전문직		주부		무응답		계	
	N	%	N	%	N	%	N	%	N	%	N	%	N	%
계	31	4.8	29	4.5	110	16.9	35	5.4	443	68.2	2	0.3	650	100

또한 맞벌이 가정의 분포는 <표 4-9>에서 처럼 맞벌이 가정이 28.5%, 맞벌이 가정이 아닌 가정이 64.9%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오늘날 젊은 세대처럼 기성세대들의 사회진출[109]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시점이었으며, 직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아직은 개방되지 못한 시대적 환경 때문일 것이다.

<표 4-9> 조사대상자 부모의 맞벌이 가정별 분포

구분	맞벌이		맞벌이 아님		양부모무직		무응답		계	
	N	%	N	%	N	%	N	%	N	%
계	185	28.5	422	64.9	24	3.7	19	2.9	650	100

8. 조부모와 동거 경험 유무별 분포

조사대상자의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에 대하여 <표 4-10>에서

109) 1999년 여성 취업자수는 8,303천명으로서, 미혼 22.1%, 기혼 77.9%이며, 1995년 여성 취업자의 취업 사유는 생계유지 19.4%, 가계보탬 34.2%, 자기집일 19.3%, 적성활용 16.5%, 사회경험 6.5%, 시간활용 3.2%, 사회기여 0.6%, 기타가 0.3%이며(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0. 12.), 2000년 4/4분기 15세 이상 인구의 18,697천명 중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9,090천명이다(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연보", 2001, p.50.)

보는 바와 같이 동거 경험이 있다가 46.9%, 동거 경험이 전혀 없다가 43.1%, 지금 같이 살고 있다가 10.0%로 나타났다. 현재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10.0%로, 이는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에서 보면 일반가구 중 2세대가 함께 하는 가구가 60.8%, 혈연가구 중 핵가족은 82%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핵가족 비율의 증가와 계속된 도시지역 인구 집중에 따른 주택난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핵가족 위주의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단순한 주택공급도 조부모와 함께 살 수 없게 하는 생활양식과 가족 가치관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4-10> 조사대상자의 조부모와 동거경험 유무별 분포

구 분	지금 살고있다		산 경험이 없다		이전에 산경험		계	
	N	%	N	%	N	%	N	%
계	65	10.0	280	43.1	305	46.9	650	100

9. 부모의 노후 준비 방법

조사대상자 부모의 현재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은 <표 4-11>와 같이 연금이나 적금이 49.2%, 자산소득이 13.5%, 경제활동으로 인한 노후준비가 9.7%로 나타났다. 부모의 노후 대책을 정확히 모르거나 무응답 조사대상자로 23.5%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배우는 대학생들로서 정확한 가정경제에 깊숙이 간여하지 못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데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연금이나 적금이 많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부모들의 직업과 관련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직(33.7%)과 전문직(21.8%)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

문일 것이다.

<표 4-11> 조사대상자 부모의 노후 준비 방법

구분	연금·적금		자산소득		경제활동		복합대책		없 다		모름·무응답		계	
	N	%	N	%	N	%	N	%	N	%	N	%	N	%
계	320	49.2	88	13.5	63	9.7	7	1.1	19	2.9	153	23.5	650	100

제 2 절 노인부양 의식의 실태 분석

앞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① 본 조사의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대상자들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많은 편이며,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 20~24세, 출생 순위별에 있어서는 1남 1녀의 저출산에 따른 장남·장녀가 비교적 많았으며, ② 조사대상자들 부모의 맞벌이 가정이 28.5%로 아직은 많은 여성이 주부(68.2%)로 활동하고 있으며, ③ 노후준비에 있어서 연금과 적금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배경을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태도,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자신의 노후에 대한 인식 태도 등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태도

1) 노인 연령에 대한 의식 태도

"노인을 몇 세부터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별 응답은 <표 4-12>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응답 평균이 60세가 47.3%, 65세가 33.8%, 70세부터가 13.5%, 75세부터가 2.1% 순위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연령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2.640, df = 4, Sig. = 0.620, p = 3.93)

<표 4-12> 노인 연령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연령 / 성별	55세		60세		65세		70세부터		75세부터		계	
	N	%	N	%	N	%	N	%	N	%	N	%
남 성	6	2.8	102	47.9	69	32.4	30	14.1	6	2.8	213	100
여 성	17	3.9	204	46.7	154	35.2	56	12.8	6	1.4	437	100
계	23	3.3	306	47.3	223	33.8	86	13.5	12	2.1	650	100

출생 순위별 응답은 <표 4-13>와 같이 출생 순위별 응답 평균이 60세가 44.3%, 65세가 35.1%, 70세부터가 15.8%, 55세부터가 3.4%, 75세부터가 1.4% 순위로 나타났으며, 출생 순위별 노인의 연령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11.638, df = 12, Sig. = 0.475, p = 0.57)

<표 4-13> 노인 연령에 대한 출생 순위별 의식 태도

연령 / 성별	55세		60세		65세		70세부터		75세부터		계	
	N	%	N	%	N	%	N	%	N	%	N	%
장남/장녀	12	3.9	160	51.4	95	30.5	37	11.9	7	2.3	311	100
차남/차녀	4	3.4	51	43.2	48	40.7	13	1.7	2	1.7	118	100
막 내	6	3.2	83	43.7	70	36.8	28	14.7	3	1.6	190	100
외 동	1	3.2	12	38.7	10	32.3	8	25.8	0	0.0	31	100
계	23	3.4	306	44.3	223	35.1	86	15.8	12	1.4	650	100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별 응답에서는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부모와 현재 살고 있거나, 과거에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더라도 노인의 연령을 평균 응답률이 60세가 가장 많은 46.9%, 다음으로 65세가 33.4%, 70세부터가 13.4% 순위로 나타났다.

성별, 출생 순위별,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모두 60세, 65세, 70세 순위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의 연령에 있어서 역연령에 따라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만 60세를 회갑년과 직장의 정년퇴직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여 각종 혜택을 지원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의 연령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8.586, df = 8, Sig. = 0.378, p = 1.20)

<표 4-14> 노인 연령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연령 / 경험	55세		60세		65세		70세부터		75세부터		계	
	N	%	N	%	N	%	N	%	N	%	N	%
지금살고 있다	5	7.7	30	46.2	20	30.8	9	13.8	1	1.5	65	100
산경험이 없다	6	2.1	130	46.4	99	35.4	42	15.0	3	1.1	280	100
산경험이 있다	12	3.9	146	47.9	104	34.1	35	11.5	8	2.6	305	100
계	23	4.6	306	46.9	223	33.4	86	13.4	12	1.7	650	100

2) 노인을 대하는 의식 태도

노인을 대하는 성별 의식 태도에 대하여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응답은 남성이 약간 그렇다가 40.8%, 보통이다가 31.9%, 매우 그렇다가

20.3%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여성도 남성과 같은 순위로 약간 그렇다가 43.9%, 보통이다가 37.1%, 매우 그렇다가 13.0% 순위로 나타났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정란[110]의 연구 결론과 같다.

아직은 우리 전통적인 효의 정신이 젊은 대학생들 마음속에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노인을 대하는 남성과 여성의 집단별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T-검증한 결과 <표 4-16>과 같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조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매 우 그렇지 않 다	약 간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약 간 그렇다	매 우 그렇다	계	평균
남 성	0.9	6.1	31.9	40.8	20.3	100	2.3
여 성	1.4	4.6	37.1	43.9	13.0	100	2.4

<표 4-16> 노인에 대한 존경의식의 성별 T-검증 결과

구분 / 성별	N	평균값	표준편차	F	sig.	t	df	p
남성	213	3.52	0.88	1.323	.250	1.500	648	.134
여성	437	3.58	0.82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별 의식 태도에 대하여 <표 4-17>에서 보

110) 한정란,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20권 3호, 2000, p.124.

는 바와 같이,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응답은 지금 살고 있는 경우에 약간 그렇다가 47.7%, 보통이다가 24.6%, 매우 그렇다가 21.5%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이다가 42.5%, 약간 그렇다가 39.3%, 매우 그렇다가 13.2%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산 경험이 과거에 있었던 경우에는 약간 그렇다가 45.2%, 보통이다가 31.1%, 매우 그렇다가 16.1%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함께 산 경우보다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약간 낮게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X^2 = 2.900, df = 3, F = 1.367, Sig. = 0.252)

<표 4-17> 조사대상자의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지금살고 있다	3.1	3.1	24.6	47.7	21.5	100.0	2.2
산경험이 없다	1.4	3.6	42.5	39.3	13.2	100.0	2.4
산경험이 있다	0.7	6.9	31.1	45.2	16.1	100.0	2.3

3) 식단 작성의 의식 태도

“노인을 모시고 사는 경우 식단은 누구 위주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성별 응답은 <표 4-18>와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 전가족 중심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부모중심, 자녀중심, 부부중심 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21.301, df = 3, Sig. = 0.000, p = 1.64)

<표 4-18> 식단 작성의 성별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부모중심	부부중심	자녀중심	전가족중심	계
남 성	21.6	1.4	1.9	75.1	100.0
여 성	9.8	0.5	0.7	89.0	100.0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별 응답에 있어서도 <표 4-19>와 같이 지금 같이 살고 있다거나 살아본 경험이 있든 없든 전가족 중심이 가장 높고 다음이 부모중심 순위로 나타났으며, 우리 나라 젊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노인을 존경하고 노인 중심적인 효의 정신과 전통적인 전가족 중심적인 정서가 밑바탕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X^2 = 9.055, df = 6, Sig. = 0.170, p = 0.05)

<표 4-19> 식단 작성의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부모중심	부부중심	자녀중심	전가족중심	계
지금살고 있다	9.2	0.0	3.1	87.7	100.0
산경험이 없다	11.8	0.4	0.7	87.1	100.0
산경험이 있다	16.4	1.3	1.0	81.3	100.0

4)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해결 방법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성별 응답은 <표 4-20>와 같이 지금까지 마련한 돈과 자녀의 보조로 해결한다가 남성과 여성 모두 56.8%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와 사회가 보조해 주어야 한다가 23.9%로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마련한 돈(연금, 보험, 자산소득 등)으로 해결한다가 10.8%, 자녀가 보조해 주어야 한다가 6.9%며, 노인 스스로 벌어서 해결한다는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에게 있어서는 정부와 사회보조가 19.7%이나 여성은 28.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자녀가 보조해 주어야 한다가 10.8%이나 여성은 3.0%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이 모두다 지금까지 마련한 돈과 자녀의 보조로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후에 생계비와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소득을 위한 연금, 보험, 자산소득 등 경제적 수입을 마련할 제도적 장치와 본인의 강한 노후설계를 젊었을 때부터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성별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해결의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20.935, df = 5, Sig. = 0.001, p = 0.66)

<표 4-20>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의 성별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스스로 해 결	마련한 돈	마련한돈+ 자녀보조	자녀 보조	정 부 + 사회보조	무응답	계
남 성	1.4	11.3	56.8	10.8	19.7	0.0	100.0
여 성	1.4	10.3	56.8	3.0	28.1	0.5	100.0
평 균	1.4	10.8	56.8	6.9	23.9	0.2	100.0

소득별 응답은 <표 4-21>와 같이 부모의 맞벌이 가정의 유무에 따른 응답도 성별 응답과 같은 순위로 나타났으나, 8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정의 조사대상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마련한 돈으로 해결한다가 28.6%로 그 외 소득의 가정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별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21.023, df = 25, Sig. = 0.691, p = 0.02)

<표 4-21>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의 소득별 의식 태도

구분 / 소득별	스스로 해 결	마련한 돈	마련한돈 + 자녀보조	자녀 보조	정 부 + 사회보조	무응답	계
2백만원 이하	1.5	12.3	51.0	5.0	29.9	0.4	100.0
4백만원 이하	1.7	9.4	62.1	4.4	22.1	0.3	100.0
6백만원 이하	0.0	7.7	57.7	11.5	23.1	0.0	100.0
8백만원 이하	0.0	28.6	42.9	14.3	14.3	0.0	100.0
8백만원 이상	0.0	14.3	71.4	0.0	14.3	0.0	100.0
모름/무응답	0.0	8.0	52.0	12.0	28.0	0.0	100.0

맞벌이 가정의 의식 태도에 있어서 <표 4-22>와 같이 맞벌이 가정과 맞벌이가 아닌 가정의 차이는 없으나, 양부모가 무직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마련한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가 25.0%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마련한 돈과 자녀의 보조로 해결한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노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매우 높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 가정별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해결의 두 문항의 독립성 검

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22.244, df = 15, Sig. = 0.102, p = 0.06)

<표 4-22>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의 맞벌이 가정별 의식 태도

구분 / 맞벌이	스스로 해 결	마련한 돈	마련한돈 + 자녀보조	자녀 보조	정 부 + 사회보조	무응답	계
맞 벌 이	0.5	7.0	60.5	5.4	26.5	0.0	100.0
맞벌이아님	1.7	11.6	56.4	4.7	25.1	0.5	100.0
양부모무직	4.2	25.0	45.8	12.5	12.5	0.0	100.0
무 응 답	0.0	5.3	42.1	15.8	36.8	0.0	100.0

5)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의식 태도

"노인이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위해 재취업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성별 응답은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가 그렇다가 그렇지 않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취업에 대해 약간 그렇다 →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순위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정년퇴직 후에도 노인들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미래의 고령사회를 서서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성별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상호 관련성 검증을 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집단별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T-검증한 결과 <표 4-24>와 같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남 성	6.1	12.7	27.2	31.5	22.5	100.0	2.5
여 성	4.1	10.1	26.3	43.0	16.5	100.0	2.4

<표 4-24>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성별 T-검증 결과

구분 / 성별	N	평균값	표준편차	F	sig.	t	df	p
남성	213	3.52	1.15	8.115	.005	-.680	648	.497
여성	437	3.58	1.01					

조사대상자 가정의 부모가 맞벌이 유형에 따른 응답에서도 <표 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응답과 같은 순위로 나타났다.

<표 4-25>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맞벌이 가정의 의식 태도

구분 / 맞벌이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맞 벌 이	7.0	11.9	24.9	40.5	15.7	100.0	2.5
맞벌이아님	3.6	10.2	27.7	38.9	19.7	100.0	2.4
양부모 무직	12.5	12.5	25.0	33.3	16.7	100.0	2.7
무 응 답	0.0	15.8	21.1	42.1	21.1	100.0	2.3

이와 같이 나타난 이유는 노인도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위한 재취업

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맞벌이 가정별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평균은 분산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 = 4.899, df = 3, F = 1.458, Sig. = 0.255)

2. 노인 부양에 대한 의식 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111]에 의하면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에 있어서 노인들은 장남이 부양책임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녀세대는 장남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자녀가 부양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 현대 사회의 시대적인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노인 부양의 방법

"노인의 부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성별응답은 <표 4-26>와 같이 남성은 자녀가 모셔도 좋고 모시지 않아도 좋다가 62.9%, 자녀가 꼭 모셔야 한다가 29.1%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성은 78.0%와 10.8%로 남성과 여성이 노인은 자녀가 꼭 모셔야 한다는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산다는데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양극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노인부양 방법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

---

111)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비교를 보면, 노인은 부양책임자로 장남 46.0%, 형편되는 자녀 27.5%, 노부부끼리 16.0%, 아들 중 누군가 9.6%, 딸 0.7%며, 반면 65세 이하 자녀들은 형편되는 자녀 54.4%, 장남 26.1%, 노부모끼리 10.8%로 노인과 자녀간의 의식 차이가 높음을 알 수 있다.(박영란, "노인부양의 현황과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21세기 노인복지정책 방향」, 사단법인 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1999년 통권 제14호, p.173.)

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35.046, df = 4, Sig. = 0.000, p = 0.33)

<표 4-26> 노인부양 방법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자 녀	모시고 도 모시지 않아도 좋다	자녀로부터 독 립	정 부 사 회	무응답	계
남 성	29.1	62.9	5.2	2.8	0.0	100.0
여 성	10.8	78.0	6.9	4.1	0.2	100.0

연령별 응답에 있어서도 <표 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29세는 자녀가 모셔도 좋고 모시지 않아도 좋다(51.9%)는 연령이 낮은 층 보다 낮은 비율인 반면, 자녀가 꼭 모셔야 한다(22.2%)와 노인은 자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좋다(14.8%)는 연령이 낮은 층 보다 높은 비율이면서 비교적 분산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연령이 높아 갈수록 이상적인 생각보다 현실적인 자아 개념이 정립되어 가는 단계 때문일 것이다.

<표 4-27> 노인부양 방법에 대한 연령별 의식 태도

구분 / 연령별	자 녀	모시고 도 모시지 않아도 좋다	자녀로부터 독 립	정부·사회	무응답	계
17~19세	12.0	77.3	6.7	3.3	0.7	100.0
20~24세	18.0	72.9	5.7	3.4	0.0	100.0
25~29세	22.2	51.9	14.8	11.1	0.0	100.0

2) 노인의 부양책임에 대한 의식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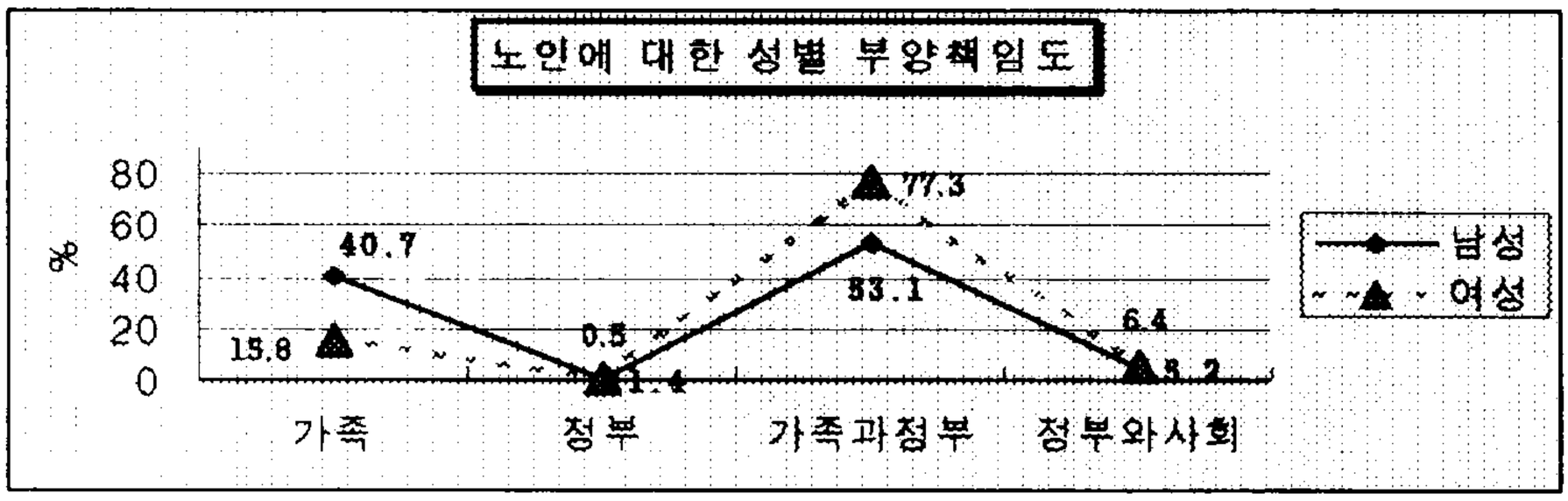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전적인 부양을 가족 중 특히 장남부부가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핵가족 증가로 인하여 부양책임도 가족이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정책 방향의 결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는 노부모 부양을 전적으로 가족이 전담하여 부양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공적인 책임으로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부양의 주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성별 응답은 <표 4-28>와 <그림 4-1>같이 남성은 가족과 정부의 책임이 53.1%, 가족의 책임이 40.4%로 가족의 책임에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은 가족과 정부의 책임이 77.3%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가족의 책임은 남성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별 노인의 부양책임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50.533, df = 3, Sig. = 0.000, p = 1.64)

<표 4-28> 노인에 대한 성별 부양책임

구분 / 성별	가 족	정 부	가족과 정부	정부와 사회	계
남 성	40.4	1.4	53.1	5.2	100.0
여 성	15.8	0.5	77.3	6.4	100.0

<그림 4-1> 노인에 대한 성별 부양책임



노인에 대한 연령별 부양책임을 <표 4-29>에서 보면 17~19세는 가족과 정부가 72.7%, 가족의 책임이 20.0%, 정부와 사회가 6.0% 순위며, 20세~24세는 가족과 정부가 69.1%, 가족이 24.5%, 정부와 사회가 5.7%, 25~29세는 가족과 정부의 책임이 55.6%, 가족의 책임이 33.3%,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11.1% 순위로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의 부양책임에 무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9> 노인에 대한 연령별 부양책임

구분 / 연령별	가 족	정 부	가족과 정부	정부와 사회	계
17~19세	20.0	1.3	72.7	6.0	100.0
20~24세	24.5	0.6	69.1	5.7	100.0
25~29세	33.3	0.0	55.6	11.1	100.0

3) 노인의 부양 형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사회에서는 대가족제도에 따라 3세대 4세대가 같이 모여 살았지만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산업구조의

다양한 변화, 직장의 이동, 여성의 사회진출, 자녀의 교육, 도시집중에 따른 주택구조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으로 지역 균형 발전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경제발전의 미명아래 모든 행복과 삶의 질을 경제적인 논리로 측정하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때 우리는 그를 인생의 성공자라고 종종 말한다. 도시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다면 경제적인 빈곤으로서 그에 따른 부양형태도 급속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어떤 부양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별 응답은 <표 4-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다른 자녀들도 부양비를 보조하는 형태(42.7%)와 자녀와 함께 살면서 노부모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는 형태(26.3%)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박성수[112]도 같은 연구 결론에 이르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간의 분산된 의식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 노인의 부양 형태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9.807, df = 5, Sig. = 0.081, p = 2.95)

<표 4-30> 노인부양 형태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자녀와동거 경제적자립	자녀와동거 부양비보조	경제적자립	따로 살면서 경제력자녀가 부양비 지급	따로살면서 자녀들이 부양비분담	무응답	계
남 성	26.3	42.7	11.3	6.1	12.2	1.4	100.0
여 성	19.9	37.5	16.0	6.2	19.0	1.4	100.0

112) 박성수, "노인부양 형태와 부양의식에 대한 연령별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65~66.

조사대상들의 연령별 부양형태를 <표 4-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연령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온 응답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다른 자녀들도 부양비를 보조하는 형태가 가장 높이 나타났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와 함께 살면서 노부모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는 형태와 자녀와 따로 살면서 노부모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는 형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부모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는 형태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1> 노인부양 형태에 대한 연령별 의식 태도

구분 / 연령별	자녀와동거 경제적자립	자녀와동거 부양비보조	경제적 자 립	따로 살면서 경제력자녀가 부양비 지급	따로살면서 자녀들이 부양비분담	무응답	계
17~19세	18.0	42.7	10.0	10.7	15.3	3.3	100.0
20~24세	23.0	38.5	15.4	4.9	17.3	0.8	100.0
25~29세	25.9	33.3	22.2	3.7	14.8	0.0	100.0

조사대상자들의 출생 순위별 응답을 <표 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자(외동)→ 막내→ 차남 · 차녀→ 장남 · 장녀→ 순위로 자녀와 함께 살면서 다른 자녀들도 부양비를 보조하는 형태가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으로 자녀와 함께 살면서 노부모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녀의 부모부양 형태도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독립적인 노후대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노후에 자녀들간의 부담으로 남아 부모자식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출생 순위별 노인의 부양 형태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을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X^2 = 15.372, df = 15, Sig. = 0.425, p = 0.43)

<표 4-32> 노인부양 형태에 대한 출생 순위별 의식 태도

구분 / 출생순위	자녀와동거 경제적자립	자녀와동거 부양비보조	경제적자립	따로 살면서 경제력자녀가 부양비 지급	따로살면서 자녀들이 부양비분담	무응답	계
장남/장녀	19.9	37.6	17.4	6.1	18.0	1.0	100.0
차남/차녀	22.9	38.1	13.6	8.5	16.1	0.8	100.0
막 내	24.2	41.6	11.1	5.3	16.3	1.6	100.0
독자(외동)	25.8	45.2	9.7	3.2	9.7	6.5	100.0

조사대상자들의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에 있어서 <표 4-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생 순위별 형태의 응답과 같은 순위의 비율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자녀와 함께 살면서 다른 자녀들도 부양비를 보조하거나 노인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노인의 부양 형태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을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6.451, df = 10, Sig. = 0.776, p = 0.90)

<표 4-33> 노인부양 형태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구분 / 산경험	자녀와동거 경제적자립	자녀와동거 부양비보조	경제적 자 립	따로 살면서 경제력자녀가 부양비 지급	따로살면서 자녀들이 부양비분담	무응답	계
지금살고 있다	20.0	49.2	15.4	3.1	10.8	1.5	100.0
산경험이 없다	23.2	37.1	15.0	5.7	17.1	1.8	100.0
산경험이 있다	21.3	39.0	13.8	7.2	17.7	1.0	100.0

4) 노인의 부양 의무자

오늘날에는 반드시 장남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으로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를 중심으로 결혼과 함께 근거리에서 분가하여 살았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 사회는 산업발전과 도시집중화 및 직업의 다양화로 직장을 따라 부모로부터 멀리 흩어져 살아야 하고 또한 장남에 대한 부모의 의존성의 약화, 장남의 특권보다는 자녀들의 평등의식과 경제력 있는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함에 따라 부양 비중도 자연스럽게 의존성이 높은 경제력이 있는 자녀에게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노인을 모신다면 누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성별 응답은 <표 4-34>와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은 경제력 있는 자녀가 45.5%, 다음으로 아들·딸 모두가 28.6%, 장남부부가 17.4%의 순위로 나타났다. 여성은 아들·딸 모두가 가장 높은 51.5%, 다음으로 경제력 있는 자녀가 46.5%, 장남부부는 1.4%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볼 수 있다.[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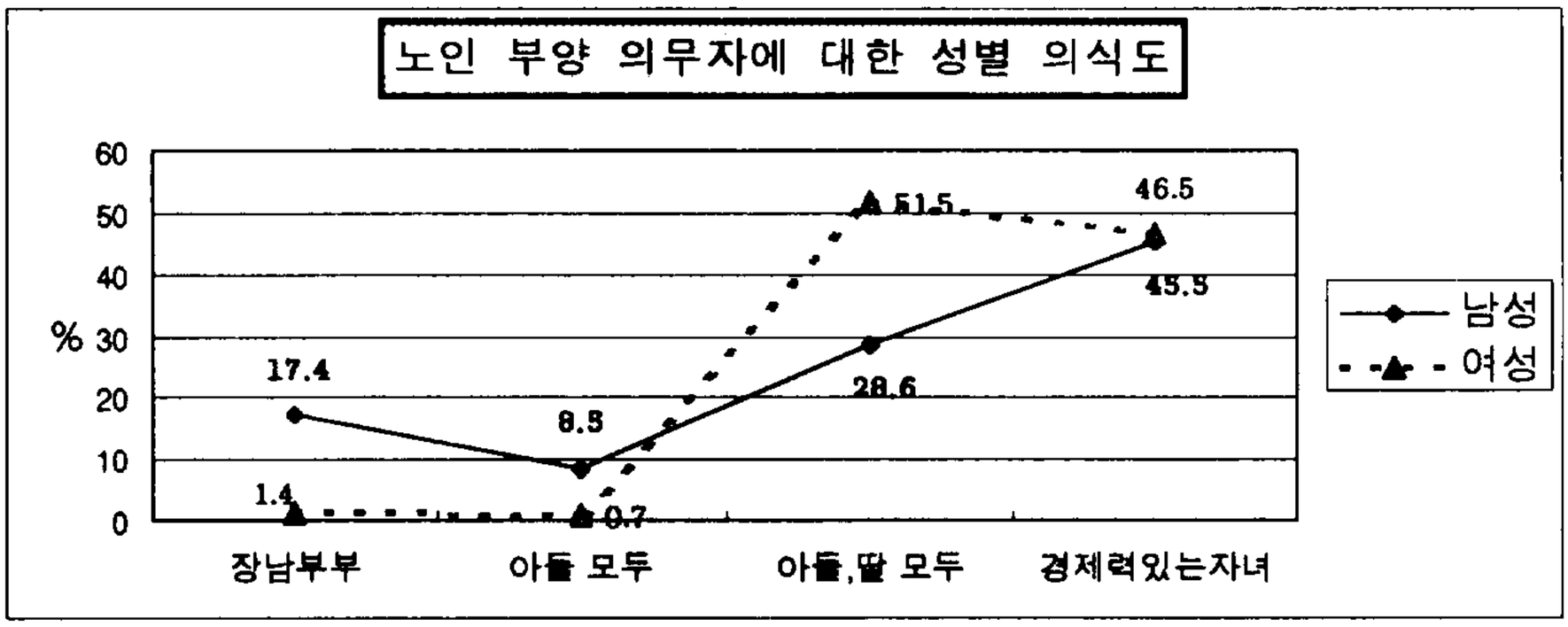
<표 4-34>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장남 부부	아들 모두	아들·딸모두	경제력 있는 자녀	계
남 성	17.4	8.5	28.6	45.5	100.0
여 성	1.4	0.7	51.5	46.5	100.0

113) 1970년대 초반 이후 이루어졌던 연구조사 결과 장남부부와의 동거 비율 변화를 보면 조사연구자의(도시와 농촌, 대상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 권규식(1973년)은 67.5%, 현두일(1976년)은 54.2%, 김태현(1981년)은 47.3%, 최순남(1982년)은 38.2%,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년)은 39.4%, 서병숙(1988년)은 49.5% 등이다.(서병숙, 「노인 연구」, 서울 : 교문사, 1993, p.59, 재구성한 것임)

성별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서로 결합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2 = 99.138, cc = 0.364, df = 3, Sig. = 0.000, p = 6.88)

<그림 4-2>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출생 순위별 응답을 <표 4-35>와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막내는 아들·딸 모두가 52.1%로 경제력 있는 자녀(39.5%)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자녀들은 경제력이 있는 자녀, 다음으로 아들·딸 모두라고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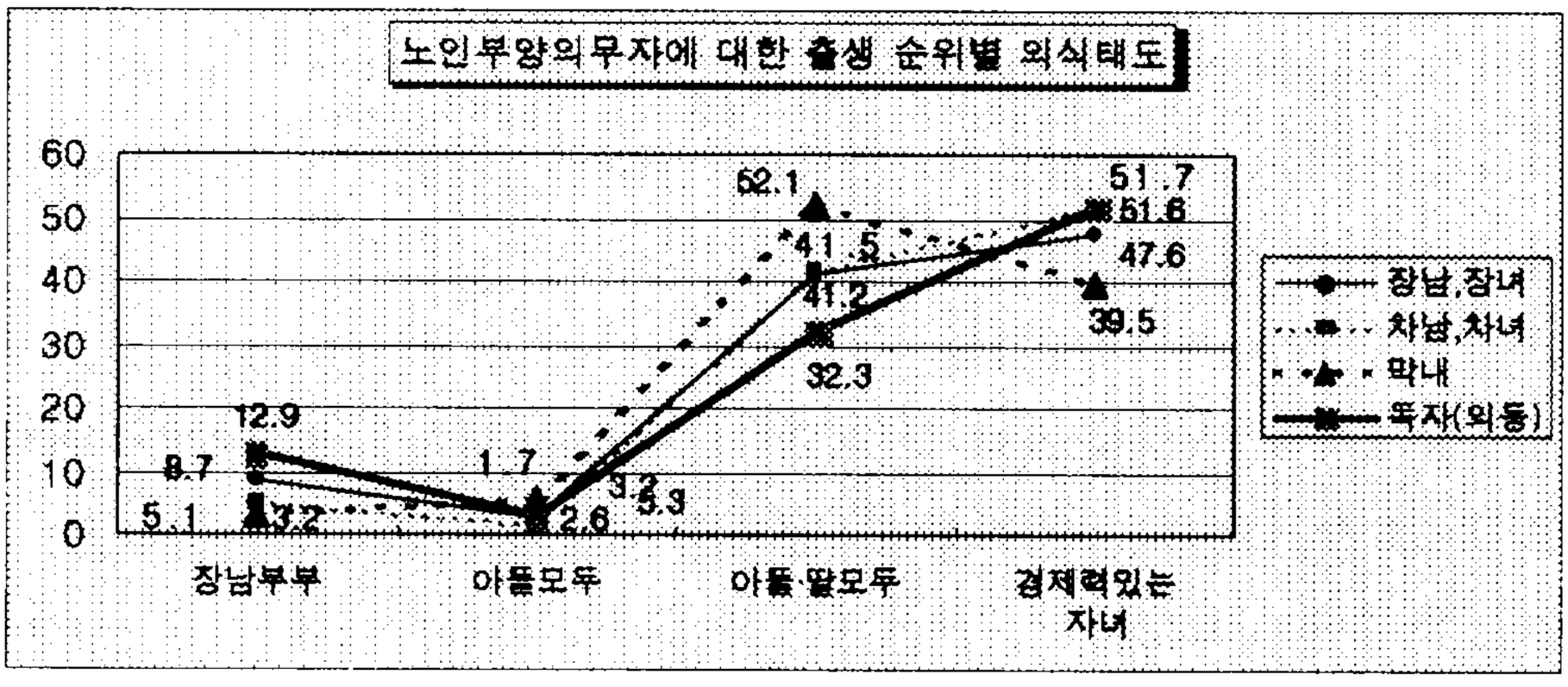
막내인 경우는 경제력 있는 자녀보다는 아들·딸 모두 모셔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가족의 위치적으로 성장한 환경적 요소가 많이 작용함으로 다른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양부담과 책임을 적게 느끼는데서 오는 가족 전체에 대한 애정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싶다.

출생 순위별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을 검증을 한 결과 서로 결합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 = 18.924, cc = 0.168, df = 9, Sig. = 0.026, p = 1.00)

<표 4-35>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출생 순위별 의식 태도

구분 / 출생순위	장남 부부	아들 모두	아들·딸모두	경제력 있는 자녀	계
장남/장녀	8.7	2.6	41.2	47.6	100.0
차남/차녀	5.1	1.7	41.5	51.7	100.0
막 내	3.2	5.3	52.1	39.5	100.0
독자(외동)	12.9	3.2	32.3	51.6	100.0

<그림 4-3> 노인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출생 순위별 의식도



소득별 응답은 <표 4-36>와 같이 4백만원 이하에서는 경제력 있는 자녀, 아들·딸 모두, 장남부부, 아들 모두의 순위나, 소득이 4백만원 이상 가정의 조사대상자들은 아들·딸 모두, 경제력 있는 자녀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바쁜 도시생활에서 노부모를 단지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생활을 희생해가면서 부양하는 부담을 벗어나 자녀들이 함께 부양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싶은데 따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별 노인부양의 의무자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14.853, df = 15, Sig. = 0.462, p = 0.23)

<표 4-36> 노인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별 의식 태도

구분 / 소득별	장남 부부	아들 모두	아들·딸모두	경제력 있는 자녀	계
2백만원이하	8.0	3.4	40.6	47.9	100.0
4백만원이하	4.7	3.4	45.6	46.3	100.0
6백만원이하	11.5	1.9	46.2	40.4	100.0
8백만원이하	0.0	14.3	71.4	14.3	100.0
8백만원이상	14.3	0.0	57.1	28.6	100.0
모름/무응답	4.0	0.0	44.0	52.0	100.0

맞벌이 가정별 응답은 <표 4-37>와 같이 맞벌이 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아닌 가정은 아들·딸 모두와 경제력 있는 자녀가 노인을 모셔야 한다는 비율이 비슷한 비율이었으나, 부모가 무직인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경제력 있는 자녀가 62.5%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나 아들·딸 모두는 25.0%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부모가 모두 무직인 경우에 경제력이 있는 자녀가 노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높게 응답한 것은 가정생활의 경제적인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데서 오는 심리적 작용인 것 같다.

맞벌이 가정별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20.068, df = 9, Sig. = 0.017, p = 0.61)

<표 4-37>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맞벌이 가정별 의식 태도

맞벌이 \ 구분	장남 부부	아들 모두	아들·딸모두	경 제 력 있는 자녀	계
맞 벌 이	7.6	1.6	41.1	49.7	100.0
맞벌이아님	5.7	3.6	45.7	45.0	100.0
부모무직	4.2	8.3	25.0	62.5	100.0
무 응 답	21.1	5.3	57.9	15.8	100.0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응답에 있어서는 <표 4-38>와 같이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이 있는 경우는 경제력 있는 자녀가 모셔야 한다가 47.2%, 아들·딸 모두가 44.9%이며,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이 없는 경우는 아들·딸 모두가 45.7%, 경제력 있는 자녀가 44.3%로 나타났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력 있는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49.2%, 아들·딸 모두가 32.3%, 장남부부가 모셔야 한다가 10.8%로서 경제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장남부부의 역활이 약해지고 경제력 있는 자녀 또는 아들·딸 모두에 의한 부양의 의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두 문항의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11.956, df = 6, Sig. = 0.063, p = 2.10)

<표 4-38> 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구분 / 산경험	장남 부부	아들 모두	아들·딸모두	경제력 있는 자녀	계
지금살고 있다	10.8	7.7	32.3	49.2	100.0
산경험이 없다	7.9	2.1	45.7	44.3	100.0
산경험이 있다	4.6	3.3	44.9	47.2	100.0

5) 부모님(시부모님·장인장모)과 동거여부

"결혼 후 연로하신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성별 응답은 <표 4-39>와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의식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김윤정[114]도 같은 연구 결론에 이르고 있다.

남성은 매우 그렇다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30.0%, 보통이다가 29.1%, 약간 그렇지 않다가 7.5% 순위이다. 반면에 여성은 보통이다가 38.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28.8%, 약간 그렇지 않다가 17.2%, 매우 그렇다가 7.8%, 매우 그렇지 않다가 7.3% 순위로 나타났다.

성별 부모님(시부모님)과 동거 여부에 대한 상호 관련성 검증을 <표 4-40>와 같이 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집단별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T-검증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4) 김윤정의 대학생 4학년 남 143명, 여 1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도 남학생이 84.6%, 여학생이 64.2%가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를, 남학생 15.4%, 여학생 35.8%가 동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정, "대학생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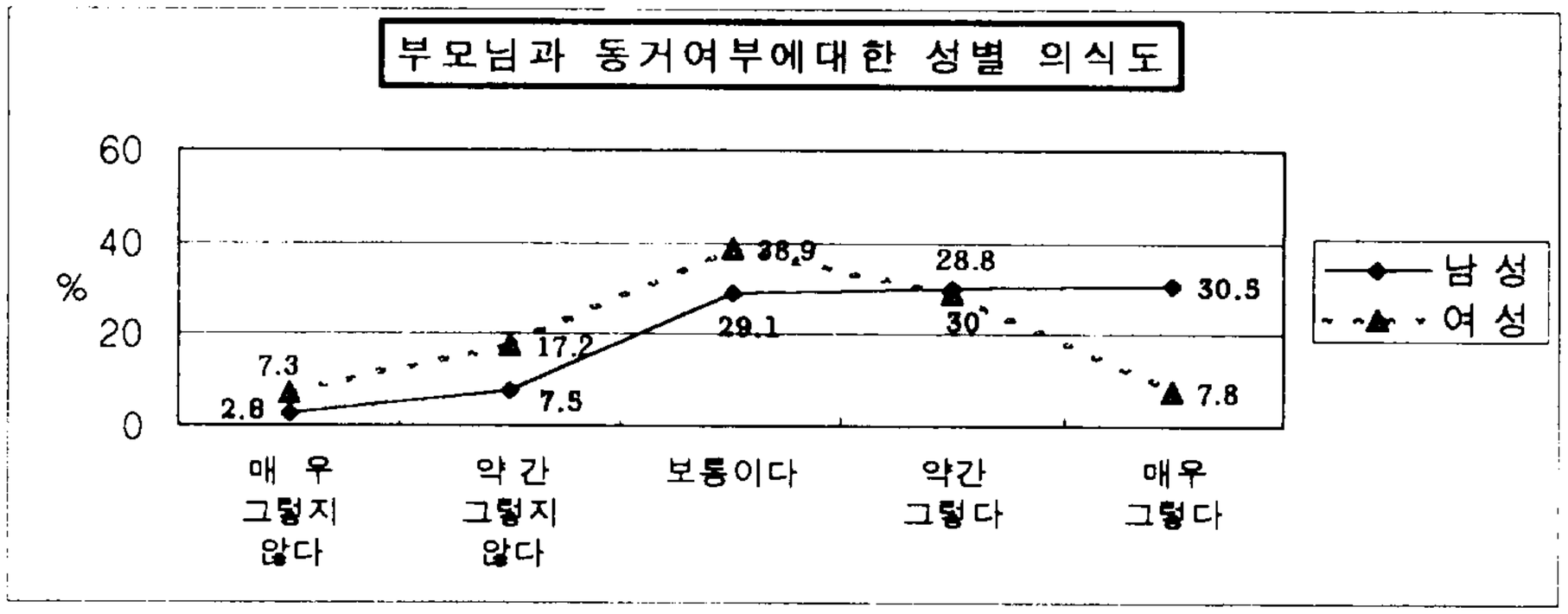
<표 4-39> 부모님(시부모님)과 동거 여부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남성	2.8	7.5	29.1	30.0	30.5	100.0	2.2
여성	7.3	17.2	38.9	28.8	7.8	100.0	2.9

<표 4-40> 부모님(시부모님)과 동거 여부에 대한 성별 T-검증 결과

구분 / 성별	N	평균값	표준편차	F	sig.	t	df	p
남성	213	3.78	1.05	2.470	.117	7.563	648	.000
여성	437	3.13	1.03					

<그림 4-4> 부모님과 동거 여부에 대한 성별 의식도



조사대상자들 아버지의 직업별 응답을 <표 4-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노무직은 약간 그렇다가 38.8%, 보통이다가 26.5%, 사무직은 약간 그렇다가 27.4%, 보통이다가 36.5%, 서비스·판매직은 약간 그렇다가

33.2%, 보통이다가 32.1%, 전문직은 약간 그렇다가 23.2%, 보통이다가 43.7%, 무직인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가 22.2%, 약간 그렇다가 25.0%, 보통이다가 36.1%로 나타났다. 직업 집단별 평균은 분산분석결과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표 4-42>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1>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직업별 의식태도

구분 / 직업별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단순노무직	12.2	14.3	26.5	38.8	8.2	100.0	2.8
사무직	6.4	14.6	36.5	27.4	15.1	100.0	2.7
서비스·판매직	2.7	14.1	32.1	33.2	17.9	100.0	2.5
전문직	7.7	14.1	43.7	23.2	11.3	100.0	2.8
무직	2.8	13.9	36.1	25.0	22.2	100.0	2.5
무응답	5.3	5.3	21.1	42.1	26.3	100.0	2.2

<표 4-42> 부모님(시부모님)과 동거 여부에 분산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value	유의도
집단-간	6	15.629	2.605	2.269	0.016
집단-내	643	738.231	1.148		
전체	649	753.860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별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은 <표 4-43>와

같이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의 응답과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의 응답자와의 나타난 의식태도의 비율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은 분산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 = 3.805, df = 2, F = 1.641, Sig. = 0.195)

<표 4-43> 부모님(시부모님)과 동거여부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태도

구분 / 산경험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지금살고 있다	6.2	9.2	35.4	32.3	16.9	100.0	2.6
산경험이 없다	5.7	16.1	39.6	24.3	14.3	100.0	2.7
산경험이 있다	5.9	13.1	32.1	33.1	15.7	100.0	2.6

또한 "결혼 후 연로하신 장인장모 또는 친정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응답을 <표 4-44>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은 보통이다가 35.2%, 약간 그렇다가 29.6%, 매우 그렇다가 16.0%의 순위로 나타났다. 여성은 약간 그렇다가 33.9%, 보통이다가 33.6%, 매우 그렇다가 15.1%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친정부모와 동거하기를 약간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성별 친정부모(장인장모)와 동거 여부에 대한 상호 관련성 검증을 <표 4-45>와 같이 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집단별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T-검증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친정부모(장인장모)와 동거 여부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균
남 성	6.1	13.1	35.2	29.6	16.0	0.0	100.0	2.6
여 성	4.1	10.1	33.6	33.9	15.1	3.2	100.0	2.7

<표 4-45> 친정부모(장인장모)와 동거 여부에 대한 성별 T-검증 결과

구분 / 성별	N	평균값	표준편차	F	sig.	t	df	p
남성	213	3.36	1.09	1.405	.236	-2.650	648	.008
여성	437	3.65	1.39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별 응답을 <표 4-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경우는 보통이다가 36.9%, 약간 그렇다가 32.3%, 약간 그렇지 않다가 12.3% 순위이며, 함께 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이다가 35.0%, 약간 그렇다가 29.6%, 매우 그렇다가 16.1%, 약간 그렇지 않다가 13.6%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 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그렇다가 35.1%, 보통이다가 32.8%, 매우 그렇다가 16.4% 순위로, 과거에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함께 산 경험이 없는 경우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더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표 4-47>에서의 집단별 평균은 분산분석결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6> 친정부모(장인장모)와 동거 여부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구분 / 산경험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균
지금살고 있다	7.7	12.3	36.9	32.3	7.7	3.1	100.0	3.0
산경험이 없다	5.0	13.6	35.0	29.6	16.1	0.7	100.0	2.7
산경험이 있다	3.9	8.5	32.8	35.1	16.4	3.3	100.0	2.7

<표 4-47> 친정부모(장인장모)와 동거 여부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태도의 분산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value	유의도
집단-간	2	14.087	7.043	4.156	.016
집단-내	647	1096.419	1.695		
전 체	649	1110.506			

6) 독자(외동)인 경우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 태도

우리 나라는 서구사회에 비해 산업화가 늦게 시작된 반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치관에 있어서 전통적 유교사상 방식의 노인세대와 서구적 사고방식의 젊은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115]

"외동딸과 결혼한다면 양가 부모님 부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들의 남성별 응답에 대해 <표 4-48>와 같이 모두 모시지 않는다가 85.7%, 부모만 모신다와 양가부모 모두 모신다가 각각

115) 김영숙, "중·고등학생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 노년학」, 제21권 3호, 2002, p.76.

7.1% 순위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형제·자매가 없이 살았던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 서구의 개방적인 의사표현이 생활방식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표 4-48> 외동딸과 결혼 후 부모부양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부모만 모신다	양가 부모 모두모신다	모두 모시지 않는다	계	
				N	%
남 성	7.1	7.1	85.7	14	100.0

외동아들과 결혼한다면 양가부모님 부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조사대상자들의 여성별 응답에 대해 <표 4-49>와 같이 형편에 따라 모시겠다가 64.7%, 모두 모시지 않는다가 23.5%, 친정 부모만 모신다가 11.8%의 순위로 나타났다. 남성은 모두 모시지 않는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여성은 형편에 따라 모시겠다고 유보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이라고 하는 모성애로 인하여 부모만 남겨두고 독립하여 산다고 하는 갈등과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시부모 부양의식이 남아있으므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표 4-49> 외동아들과 결혼 후 부모부양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친정 부모만 모신다	형편에 따라 모시겠다	모두 모시지 않는다	계	
				N	%
여 성	11.8	64.7	23.5	17	100.0

3. 자신의 노후에 대한 인식 태도

1) 자녀들과 동거 의식 태도

"노인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응답은 <표 4-50>와 같이 남성은 보통이다가 32.9%, 매우 그렇지 않다가 23.0%, 약간 그렇지 않다가 21.1%, 약간 그렇다가 14.6%, 매우 그렇다가 8.5%의 순위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다른 의식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 그렇지 않다가 35.7%, 보통이다가 30.2%, 매우 그렇지 않다가 24.3%, 약간 그렇다가 8.5%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성별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에 대한 상호 관련성 검증을 <표 4-51>와 같이 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집단별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T-검증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0> 성별 노후에 대한 자녀와 동거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균
남성	23.0	21.1	32.9	14.6	8.5	0.0	100.0	3.4
여성	24.3	35.7	30.2	8.5	1.1	0.2	100.0	3.7

<표 4-51>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에 대한 성별 T-검증 결과

구분 / 성별	N	평균값	표준편차	F	sig.	t	df	p
남성	213	2.64	1.22	16.435	.000	4.015	648	.000
여성	437	2.28	1.01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별 응답은 <표 4-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29세의 연령에서는 결혼 적령기에 근접하면서 자녀와의 동거를 17~19세, 20~24세와 같이 원하지 않는 비율이 높으면서도 약간의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비율도 나타나고 있다.

<표 4-52> 연령별 노후에 대한 자녀와 동거 의식 태도

구분 / 연령별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균
17~19세	20.7	29.3	32.7	13.3	3.3	0.7	100.0	3.5
20~24세	24.9	31.3	31.1	9.3	3.4	0.0	100.0	3.7
25~29세	22.2	33.3	22.2	14.8	7.4	0.0	100.0	3.5

조사대상자들의 출생 순위별 응답은 <표 4-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남·장녀, 차남·차녀, 막내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독자(외동)인 경우에는 노후에 자녀와 동거함을 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54>와 같이 출생순위 집단별 평균은 분산분석결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3> 출생 순위별 노후에 대한 자녀와 동거 의식태도

구분 / 출생순위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균
장남/장녀	24.4	32.8	28.6	10.9	2.9	0.3	100.0	3.7
차남/차녀	22.9	31.4	30.5	8.5	6.8	0.0	100.0	3.6
막 내	24.2	28.9	34.7	8.9	3.2	0.0	100.0	3.6
독자(외동)	19.4	22.6	35.5	22.6	0.0	0.0	100.0	3.4

<표 4-54> 출생 순위별 노후에 대한 자녀와 동거 의식 태도의 분산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value	유의도
집단-간	3	2.057	0.686	0.568	0.636
집단-내	646	779.741	1.207		
전 체	649	781.798			

조사대상자들의 부모 맞벌이 가정별 응답은 <표 4-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약간 그렇다가 35.1%, 보통이다가 33.5%, 매우 그렇지 않다가 19.5% 순위이며,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이다가 30.8%, 약간 그렇다가 29.4%, 매우 그렇지 않다가 23.9% 순위이다. 또한 양부모가 무직인 경우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가 41.7%, 약간 그렇지 않다가 37.5%, 보통이다가 16.7% 순위로 <표 4-56>와 같이 집단별 평균은 분산분석결과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5> 부모 맞벌이 가정별 노후에 대한 자녀와 동거 의식태도

구분 / 맞벌이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균
맞벌이	19.5	35.1	33.5	8.6	3.2	0.0	100.0	3.6
맞벌이아님	23.9	29.4	30.8	11.8	3.8	0.2	100.0	3.6
양부모무직	41.7	37.5	16.7	4.2	0.0	0.0	100.0	4.2
무 응 답	42.1	15.8	31.6	5.3	5.3	0.0	100.0	3.8

<표 4-56> 부모 맞벌이 가정별 노후에 대한 자녀와 동거 의식태도의 분산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value	유의도
집단-간	3	9.388	3.129	2.617	0.050
집단-내	646	772.411	1.196		
전 체	649	781.798			

2) 자녀부양 기대 의식 태도

"노인이 되면 자녀들로부터 부양 받기를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응답은 <표 4-57>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 노후에 자녀부양 기대의 여부에 대한 상호 관련성 검증을 <표 4-58>와 같이 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집단별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T-검증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7> 성별 자녀부양 기대 의식

구분 / 성별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균
남성	23.5	24.9	32.9	15.5	3.3	0.0	100.0	3.5
여성	20.8	31.8	31.4	15.6	0.2	0.2	100.0	3.6

<표 4-58> 자녀부양 기대 여부에 대한 성별 T-검증 결과

구분 / 성별	N	평균값	표준편차	F	sig.	t	df	p
남성	213	2.50	1.11	2.667	.103	.708	648	.479
여성	437	2.44	1.04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별 응답은 <표 4-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19세와 20~24세는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25~29세는 약간 그렇지 않다가 44.4%, 보통이다가 25.9%, 매우 그렇지 않다가 22.2%, 약간 그렇다가 7.4%의 순위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표 4-59> 연령별 자녀부양 기대 의식

구분 / 연령별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균
17~19세	17.3	32.0	33.3	15.3	1.3	0.7	100.0	3.5
20~24세	23.0	27.9	31.7	16.1	1.3	0.0	100.0	3.6
25~29세	22.2	44.4	25.9	7.4	0.0	0.0	100.0	3.8

출생 순위별 응답은 <표 4-60>와 같이 장남·장녀는 약간 그렇지 않다가 29.9%, 보통이다가 29.6%, 매우 그렇지 않다가 20.9% 순위이며, 차남·차녀는 보통이다가 34.7%, 매우 그렇지 않다가 27.1%, 약간 그렇지 않다가 25.4% 순위이다. 막내인 경우에는 약간 그렇지 않다가 33.7%, 보통이다가 31.1%, 매우 그렇지 않다가 19.5% 순위이며, 독자(외동)은 보통이다가 48.4%로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가 22.6%, 약간 그렇지 않다가 16.1%로 노인이 되면 자녀들로부터 부양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비율이 높으나 <표 4-61>와 같이 출생 순위집단별 평균은 분산분석결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0> 출생 순위별 자녀부양 기대 의식

구분 / 출생순위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균
장남/장녀	20.9	29.9	29.6	17.7	1.6	0.3	100.0	3.5
차남/차녀	27.1	25.4	34.7	11.9	0.8	0.0	100.0	3.7
막 내	19.5	33.7	31.1	14.7	1.1	0.0	100.0	3.6
독자(외동)	22.6	16.1	48.4	12.9	0.0	0.0	100.0	3.5

<표 4-61> 출생 순위별 자녀부양 기대 의식의 분산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value	유의도
집단-간	3	2.704	.901	.795	0.497
집단-내	646	732.756	1.134		
전 체	649	735.460			

조사대상자들의 부모 맞벌이 가정별 응답은 <표 4-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맞벌이 가정은 약간 그렇지 않다가 33.0%, 보통이다가 29.7%, 매우 그렇지 않다가 19.5%, 약간 그렇다가 16.8% 순위로 자녀들로부터 부양 받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자녀들로부터 부양 기대가 보통이다가 33.6%, 약간 그렇지 않다가 27.3%, 매우 그렇지 않다가 21.6%, 약간 그렇다가 15.9% 순위로 나타났다.

양부모가 무직인 경우에는 자녀들로부터 부양기대를 맞벌이 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보다 더 기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우 그렇지 않다가 33.3%, 보통이다가 25.0% 순위로 <표 4-63>와 같이

부모 맞벌이 가정의 집단별 평균은 분산분석결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2> 부모의 맞벌이 가정별 노후에 대한 자녀부양의 기대의식 태도

구분 / 맞벌이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균
맞벌이	19.5	33.0	29.7	16.8	1.1	0.0	100.0	3.5
맞벌이아님	21.6	27.3	33.6	15.9	1.4	0.2	100.0	3.5
양부모무직	41.7	33.3	25.0	0.0	0.0	0.0	100.0	4.2
무응답	21.1	42.1	21.0	15.8	0.0	0.0	100.0	3.7

<표 4-63> 부모의 맞벌이 가정별 자녀 부양의 기대의식 태도의 분산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value	유의도
집단-간	3	10.437	3.479	3.100	0.026
집단-내	646	725.023	1.122		
전 체	649	735.460			

조사대상자들의 노인과 함께 산 경험별 응답은 <표 4-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자녀들로부터 부양기대를 보통이다가 33.8%, 매우 그렇지 않다가 26.2%, 약간 그렇지 않다가 21.5%, 약간 그렇다가 16.9% 순위이며,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그렇지 않다가 33.9%, 보통이다가 30.0%, 매우 그렇지 않다가 20.7%, 약간 그렇다가 14.3% 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생은 노후에 자녀들로부터 부양기대를 보통이다가 33.1%, 약간 그렇지 않다가 27.2%, 매우 그렇지 않다가 21.6%, 약간 그렇다가 16.4%로써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 아니면 현재 함께 살고 있을지라도 유의차가 없었다.

현대의 시대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은 핵가족에 따라 개인주의 사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은 분산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 = 1.296, df = 2, F = 0.571, Sig. = 0.565)

<표 4-64>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자녀부양 기대 의식

구분 / 산경험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균
지금살고 있다	26.2	21.5	33.8	16.9	1.5	0.0	100.0	3.5
산경험이 있다	20.7	33.9	30.0	14.3	1.1	0.0	100.0	3.6
산경험이 없다	21.6	27.2	33.1	16.4	1.3	0.3	100.0	3.5

3) 노후준비 방법

"노인이 되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응답은 <표 4-65>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본인의 연금과 자산소득이 가장 높은 64.9%이며, 다음으로 자녀의 부양과 본인의 자산소득이 14.5%, 정부와 사회로부터의 부양이 5.5%, 자녀와 정부로부터의 부양이 3.1%, 자녀들로부터의 부양이 0.2%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금제도를 보다 확대하고 현재 중장년층은 노후를 위한 연금

과 자산소득을 위해 생활이 어렵더라도 소득의 일정금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65> 조사대상자의 성별 노후준비 방법

구분 / 성별	자녀부양		본인연금 자산소득		자녀부양 본인연금		자녀부양 자산소득		자 녀 정부부양		정 부 사회부양		무응답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남 성	1	0.5	145	68.1	24	11.3	29	13.6	5	2.3	7	3.3	2	0.9	213	100
여 성	0	0.0	270	61.8	47	10.8	67	15.3	17	3.9	34	7.8	2	0.5	437	100
계	1	0.2	415	64.9	71	11.1	96	14.5	22	3.1	41	5.5	4	0.7	650	100

조사대상자들의 출생 순위별 응답에서도 <표 4-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연금·자산소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부양·자산소득 등 순위로 나타내고 있다.

<표 4-66>조사대상자의 출생 순위별 노후준비 방법

구분 / 출생순위	자녀부양		본인연금 자산소득		자녀부양 본인연금		자녀부양 자산소득		자 녀 정부부양		정 부 사회부양		무응답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장남/장녀	0	0.0	209	67.2	30	9.6	39	12.5	8	2.6	23	7.4	2	0.6	311	100
차남/차녀	0	0.0	76	64.4	16	13.6	13	11.0	4	3.4	9	7.6	0	0.0	118	100
막 내	1	0.5	112	58.9	22	11.6	35	18.4	10	5.3	8	4.2	2	1.1	190	100
외 동	0	0.0	18	58.1	3	9.7	9	29.0	0	0.0	1	3.2	0	0.0	31	100
계	1	0.1	415	62.2	71	11.1	96	17.8	22	2.8	41	5.6	4	0.4	650	100

조사대상자들 부모의 맞벌이별 응답은 <표 4-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과 출생순위별 응답은 비슷한 비율의 순위를 나타내면서 맞벌이 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아닌 가정의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는 같은 순위로 나타났다. 양부모가 무직인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과 자산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83.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4-67> 조사대상자 가정의 부모 노후준비 방법

구분 / 맞벌이	자녀부양		본인연금 자산소득		자녀부양 본인연금		자녀부양 자산소득		자 녀 정부부양		정 부 사회부양		무응답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맞 벌 이	1	0.5	119	64.3	16	8.6	24	13.0	11	5.9	12	6.5	2	1.1	185	100
맞벌이아님	0	0.0	266	63.0	51	12.1	66	15.6	9	2.1	28	6.6	2	0.5	422	100
양부모무직	0	0.0	20	83.3	1	4.2	2	8.3	1	4.2	0	0.0	0	0.0	24	100
무 응 답	0	0.0	10	52.6	3	15.8	4	21.1	1	5.3	1	5.3	0	0.0	19	100
계	1	0.1	415	65.8	71	10.2	96	14.5	22	4.4	41	4.6	4	0.4	650	100

4)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의식태도

"노인이 되면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요양원, 실버타운 등)을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응답은 <표 4-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은 보통이다가 29.1%, 매우 그렇지 않다가 23.9%, 약간 그렇다가 23.0%, 약간 그렇지 않다가 15.0% 순위이다. 여성은 약간 그렇다가 35.2%, 보통이다가 23.8%, 매우 그렇지 않다와 약간 그렇지 않다가 14.6% 순위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 노후에 노인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상호 관련성 검증을 <표 4-69>와 같이 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집단별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8>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성별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균
남 성	23.9	15.0	29.1	23.0	8.9	0.0	100.0	3.2
여 성	14.6	14.6	23.8	35.2	11.4	0.2	100.0	2.9

<표 4-69> 노인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성별 T-검증 결과

구분 / 성별	N	평균값	표준편차	F	sig.	t	df	p
남성	213	2.78	1.29	.515	.473	-3.537	648	.000
여성	437	3.16	1.27					

조사대상자들의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별 응답에서는 <표 4-70>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경우가 산 경험이 있었거나 또는 없는 경우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분산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 = 1.982, df = 3, F = 0.600, Sig. = 0.549)

<표 4-70> 노인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의식 태도

구분 / 산 경험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균
지금살고 있다	16.9	12.3	18.5	40.0	12.3	0.0	100.0	2.8
산경험이 없다	16.4	15.7	27.5	28.2	12.1	0.0	100.0	3.0
산경험이 있다	19.0	14.4	25.2	32.1	8.9	0.3	100.0	3.0

4. 노인에 대한 부양 의식 태도

시대는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생활양식도 변화하면서 시대적인 가치관도 바뀌게 된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자라고 또한 늙어 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고 고백하고 있다.116) 부모부양은 부모와 자식간의 당연한 도리이지만 시대적인 가치관에 따라 부양방법도 다양한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부양자로서 중년이 되었을 경우 자신의 부모·조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다. 현재의 부모가 노후대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 부양부담에 대한 자녀들간의 갈등과 심적부담 더 나아가 저출산, 이혼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부담은 결국 가족중심의 한계를 벗어날 것이다. 현재 대학생인 조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향후 미래의 부양의무자로서

116) 대한성서공회, “시편 제90편10절”, 「성경전서」, 1997, p.634.

미래의 경제적 · 정서적 · 서비스 부양의식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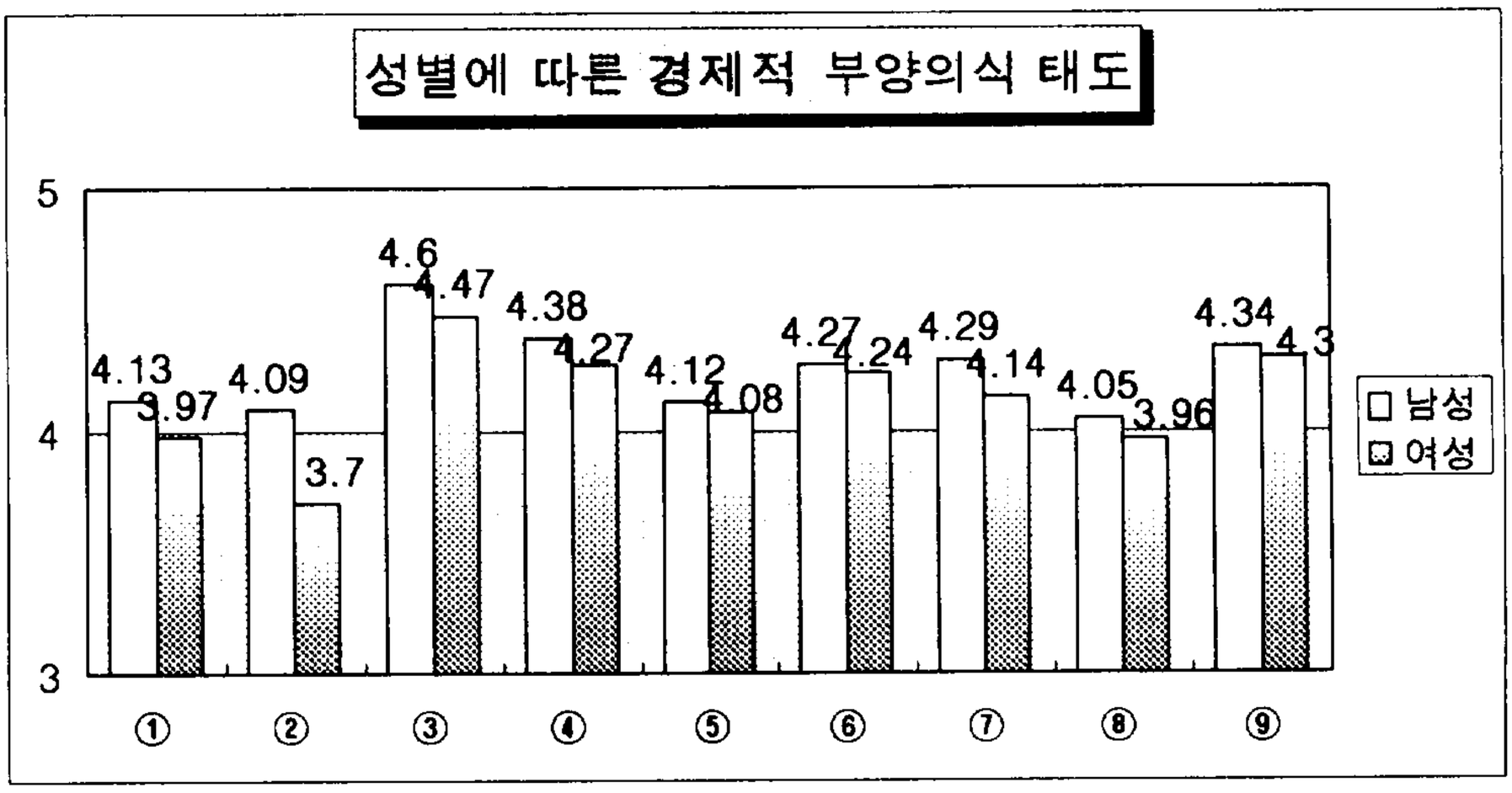
1) 미래의 경제적 부양의식

노인에 대한 성별 경제적 부양의식을 <표 4-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의 평균값이 4.25점, 여성의 평균값이 4.12점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4-5>. "금전 문제로 노인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노인을 위해 되도록 양보한다"와 "노인이 원하시는 여행이나 관광이 있을 때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린다"라는 항목은 유의수준 0.05에서 T-검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1> 성별에 따른 경제적 부양의식 태도

내 용	평 균		표준편차		T	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① 생활에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도 노인에게 용돈은 반드시 드린다	4.13	3.97	.96	.85	2.102	.036
② 금전문제로 노인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노인을 위해 되도록 양보한다	4.09	3.70	.89	.80	5.647	.000
③ 몸이 편찮으실 경우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린다	4.60	4.47	.63	.68	2.240	.025
④ 노인이 손자녀에게 약간의 용돈을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드린다	4.38	4.27	.70	.79	1.796	.073
⑤ 노인이 원하시는 물건을 사실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린다	4.12	4.08	.82	.78	0.701	.484
⑥ 취미생활, 노인대학, 친목회 등에 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드린다	4.27	4.24	.79	.75	0.430	.668
⑦ 노인이 원하시는 여행이나 관광이 있을 때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린다	4.29	4.14	.79	.82	2.172	.030
⑧ 노인이 관혼상제에 참석하실 때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드린다	4.05	3.96	.91	.90	1.199	.231
⑨ 노인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린다	4.34	4.30	.76	.70	0.598	.550

<그림 4-5> 성별 경제적 부양 의식도



2) 미래의 정서적 부양의식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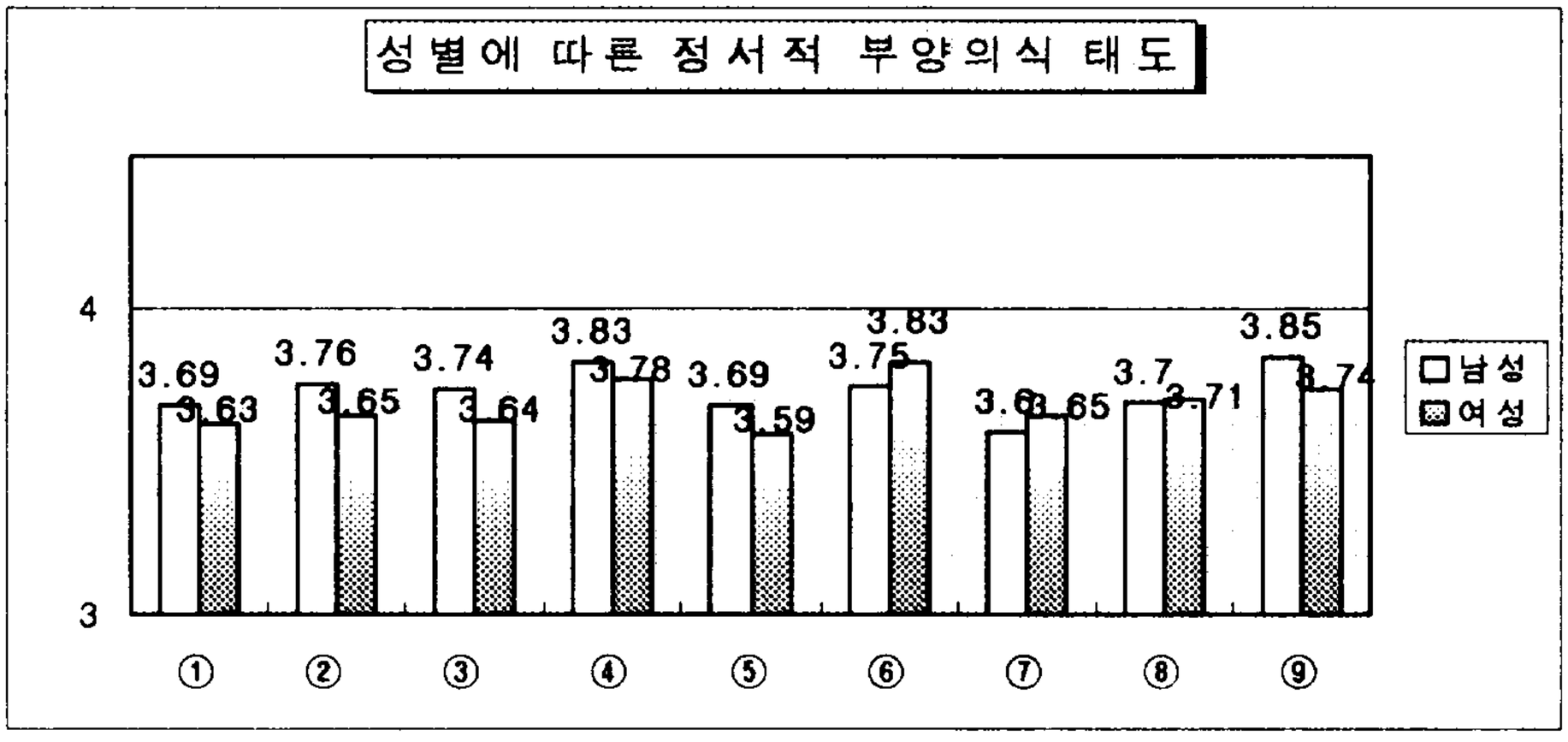
노인에 대한 성별 정서적 부양의식을 <표 4-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의 평균값이 3.73점, 여성의 평균값이 3.69점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그림 4-6>.

이는 경제적·정서적·서비스 부양의식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현대 사회의 젊은층과 노년층의 가치관·세대차이는 물론이고 생존경쟁이 심한 바쁜 사회생활로 인하여 심신이 지치는 등 휴일이면 가족간의 휴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과거와 같이 시간을 만들어 노부모와 함께 여가를 보내는 등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져 젊은이들에게는 노부모가 귀찮게 여겨질 것이다. 성별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T-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2> 성별에 따른 정서적 부양의식 태도

내 용	평 균		표준편차		T	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① 쓸모없는 물건들을 모아두더라도 이해하고 나도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	3.69	3.63	.94	.89	0.740	.459
②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시더라도 이해하고 열심히 들어 드린다	3.76	3.65	.94	.85	1.566	.118
③ 일상생활에서 내방식과 다른 경우 이해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3.74	3.64	.91	.83	1.472	.142
④ 외로움을 느끼시지 않도록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어 말동무를 해 드린다	3.83	3.78	.97	.85	0.744	.457
⑤ 어린애로 알고 필요없는 잔소리를 하실 경우 끝까지 들은 후 공손히 대답한다	3.69	3.59	1.00	.90	1.253	.210
⑥ 집안의 대소사를 반드시 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3.75	3.83	1.00	.89	-1.052	.293
⑦ 노인이 하루종일 무엇으로 소일하고 계신지에 관해 계속 관심을 가진다	3.60	3.65	.95	.88	-0.646	.518
⑧ 노인이 이웃집 노인들을 집에 자주 모시고 오더라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잘 대접해 드린다	3.70	3.71	.96	.92	-0.185	.853
⑨ 나의 배우자와 노인이 대립할 경우 되도록 노인을 위해 양보하도록 설득한다	3.85	3.74	.92	.84	1.496	.135

<그림 4-6> 성별 정서적 부양 의식도



3) 미래의 서비스 부양의식 태도

노인에 대한 성별 서비스 부양의식을 <표 4-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의 평균값이 3.88점, 여성의 평균값이 3.86점으로 남성과 여성의 평균값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림 4-7>.

<표 4-73> 성별 서비스부양 의식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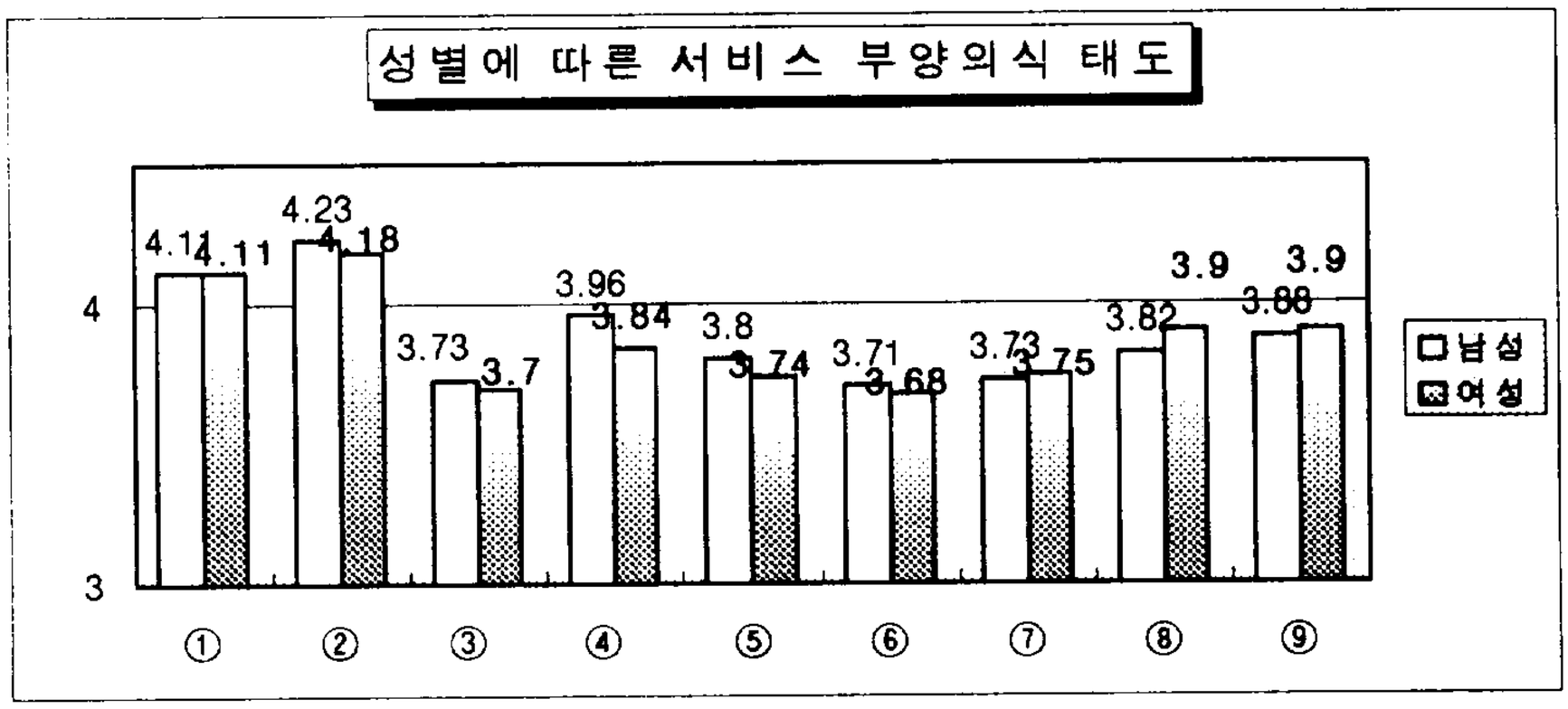
내 용	평 균		표준편차		T	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① 노인이 갑자기 편찮으시면 밤을 세워서라도 간호해 드린다	4.11	4.11	.89	.81	-0.25	.980
②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친척집,친구집을 방문하시고자 할 때 모셔다 드린다	4.23	4.18	.79	.76	0.838	.402
③ 병석에 계시는 노인의 수발(세수,목욕,대소변처리)을 잘 들어 드린다	3.73	3.70	1.03	.93	0.372	.710
④ 노인이 요구하시는 잔심부름을 잘 해 드린다	3.96	3.84	.80	.79	1.747	.081
⑤ 주무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신지 자주 잠자리를 돌 봐 드린다	3.80	3.74	.92	.88	0.824	.410
⑥ 되도록 노인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식탁을 준비한다	3.71	3.68	.93	.85	0.399	.690
⑦ 가족끼리 외식이나 여행 시 반드시 노인을 모시고 간다	3.73	3.75	.99	.89	-0.237	.813
⑧ 노인이 더러워진 의복이나 속옷을 자주 빨아 드린다	3.82	3.90	.98	.95	-1.032	.302
⑨ 노인이 집안에서 하실 수 있는 적절한 가사 일을 마련해 드린다	3.88	3.90	.95	.81	-0.363	.717

현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맞벌이 가정이 늘어만 갈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심각하게 우리 사회와 가정에 접근한 것은 와상질환 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부양 문제

로 가족이 부양서비스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멀어져만 가고 있다.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나 간병인 제도와 같은 것을 활성화 시켜 사회·가정문제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성별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T-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7> 성별 서비스 부양 의식도



4)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지수 비교

(1) 성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지수 비교

조사대상자의 성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는 <표 4-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지수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으며, 부양의식 지수 중 경제적 부양지수가 남성이 38.26점, 여성이 37.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8>. 각 부양 지수는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총 45점 만점이며, 각 항목당 5점 만점으로 처리하였다. <표 4-75>와 같이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T-검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4> 성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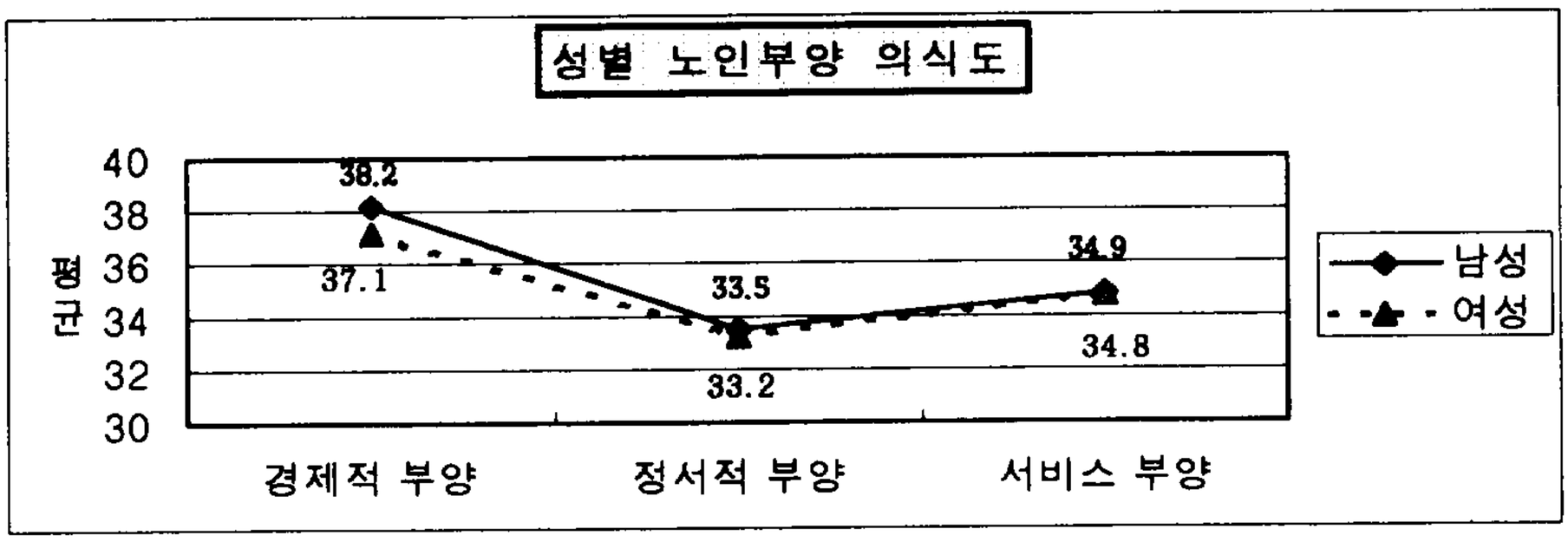
성별 / 지수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지 수	38.2629	37.1346	33.5708	33.2046	34.9718	34.8101

<표 4-75> 성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 분산분석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제곱합	181.489	17053.472	17234.961	19.110	22112.729	22131.839	3.747	22353.067	22356.814
자유도	1	642	643	1	645	646	1	648	649
평균제곱	181.489	26.563		19.110	34.283		3.747	34.495	
F value	6.832			0.557			0.109		
유의도	0.009			0.456			0.742		

* 무응답 제외

<그림 4-8> 성별 노인부양 의식도



(2) 출생 순위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지수 비교

조사대상자의 출생 순위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는 <표 4-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부양지수에서는 차남·차녀가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부양지수와 서비스 부양지수는 막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77>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분산분석한 결과 출생순위 집단들의 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6> 출생 순위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

지수 \ 출생순위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막내	독자 외동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막내	독자 외동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막내	독자 외동
지 수	37 .2476	37 .9138	37 .7947	37 .5078	33 .4000	33 .2203	33 .4947	31 .9355	34 .8103	34 .8390	35 .0474	34 .3548

<표 4-77> 출생 순위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 분산분석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제곱합	70.804	17164.157	17234.961	68.302	22063.537	22131.839	15.396	22341.418	22356.814
자유도	3	640	643	3	643	646	3	646	649
평균제곱	23.601	26.819		22.767	34.313		5.132	34.584	
F value	.880			.664			.148		
유의도	.451			.575			.931		

* 무응답 제외

(3) 종교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지수 비교

조사대상자의 종교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는 <표 4-7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경제적 부양지수와 정서적 부양지수, 서비스 부양지수는 불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 4-79>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분산분석한 결과 종교별 집단들의 정서적·서비스 부양 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8> 종교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

종교별 / 지수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없음	기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없음	기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없음	기타
지 수	38 .1974	37 .8956	37 .6316	36 .0000	36 .8112	38 .1111	34 .9221	33 .6135	33 .5256	27 .0000	32 .4502	33 .0000	36 .8182	35 .1594	35 .3462	35 .0000	33 .7692	34 .1111

<표 4-79> 종교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지수 비교

구분 / 분산분석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제곱합	193.372	17041.589	17234.961	438.167	21693.673	22131.839	619.653	21737.161	22356.814
자유도	5	638	643	5	641	646	5	644	649
평균제곱	38.674	26.711		87.633	33.843		123.931	33.753	
F value	1.448			2.589			3.672		
유의도	.25			.025			.003		

* 무응답 제외

(4) 소득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지수 비교

조사대상자들 부모의 소득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는 <표 4-8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부양지수는 6백만원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부양지수와 서비스 부양지수는 8백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표 4-81>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분산분석한 결과 소득별 집단들의 정서적 부양 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80> 소득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

소득별 / 지수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2백만원이하	4백만원이하	6백만원이하	8백만원이하	8백만원이상	모름/무응답	2백만원이하	4백만원이하	6백만원이하	8백만원이하	8백만원이상	모름/무응답	2백만원이하	4백만원이하	6백만원이하	8백만원이하	8백만원이상	모름/무응답
지 수	37	37	39	36	39	38	32	33	34	31	38	33	34	34	35	35	39	35
	.0734	.5748	.0192	.0000	.0000	.0800	.8842	.3165	.8077	.5714	.4286	.9600	.4406	.9094	.5192	.2857	.7143	.8800

<표 4-81> 소득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 분산분석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제곱합	208.680	17026.281	17234.961	378.600	21753.240	22131.839	261.453	22095.361	22356.814
자유도	5	638	643	5	641	646	5	644	649
평균제곱	41.736	26.687		75.720	33.936		52.291	34.310	
F value	1.564			2.231			1.524		
유의도	.168			.050			.180		

* 무응답 제외

(5) 지역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지수 비교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는 <표 4-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부양지수는 중랑구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부양지수와 서비스 부양지수는 서초구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83>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분산분석한 결과 지역별 집단들

의 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82> 지역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

소득별 / 지수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서울시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서울시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서울시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지 수	38	36	37	38	37	37	36	34	33	32	33	33	33	32	35	34	34	34	35	35	34
	.0153	.5464	.3053	.3974	.8571	.8444	.6957	.1231	.1563	.6526	.2436	.3281	.7174	.7391	.4615	.7216	.1263	.4937	.2813	.4891	.3333

<표 4-83> 지역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 분산분석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제곱합	267.109	16967.852	17234.961	174.743	21957.096	22131.839	184.197	22172.617	22356.814
자유도	6	637	643	6	640	646	6	643	649
평균제곱	44.518	26.637		29.124	34.308		30.700	34.483	
F value	1.671			.849			.890		
유의도	.125			.532			.501		

* 무응답 제외

(6) 직업별 노인부양 의식에 대한 지수 비교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직업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는 <표 4-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부양지수는 서비스·판매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부양지수와 서비스 부양지수는 무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85>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분산분석한 결과 직업별 집단들의 경제적 부양 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84>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직업별 노인부양 의식 지수

직업별 / 지수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단순노무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전문직	무직	사망	무응답	단순노무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전문직	무직	사망	무응답	단순노무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전문직	무직	사망	무응답
지 수	36	37	38	37	36	42	37	31	33	34	33	33	27	32	33	34	35	34	35	28	33
	.687	.244	.222	.496	.666	.000	.105	.583	.091	.213	.253	.583	.000	.210	.918	.547	.831	.570	.055	.000	.736

<표 4-85>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부양 의식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 분산분석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제곱합	267.109	16967.852	17234.961	174.743	21957.096	22131.839	184.197	22172.617	22356.814
자유도	6	637	643	6	640	646	6	643	649
평균제곱	44.518	26.637		29.124	34.308		30.700	34.483	
F value	1.671			.849			.890		
유의도	.125			.532			.501		

* 무응답 제외

5.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식 태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수 감소와 이혼 등의 증가로 가족이 해체되어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생겨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수 증가까지 겹쳐 저소득 계층에 대한 노인부양이 날로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하여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시대에 역행한 것으로 앞으로는 막대한 국가의 재정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발전의 저해 요인 제공과 가장 큰 사회 문제로 접어들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모든 문제를 가족간의 접근으로 해결하였지만, 국가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의식구조도 바뀌어 저소득층으로 살게된 원인이 부모의 경제적인 빈곤 속에 배움의 기회 상실과 무상속, 본인의 무능 등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의 착오와 방관, 세계경제의 제반 사회적 환경적 요소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실패 등 국가의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빈곤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의 책임도 현대 사회에서는 크다 할 것이다. <표 -86>와 <표 4-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응답한 대다수가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의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다.

<표 4-86> 조사대상자의 성별 노인부양 문제해결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정부차원	사회·민간	개인적인 해결	기 타	무응답	계
남 성	43.3	13.7	2.7	6.2	33.3	100.0
여 성	40.7	14.9	3.3	5.9	35.2	100.0

<표 4-87> 조사대상자의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노인부양 문제해결 의식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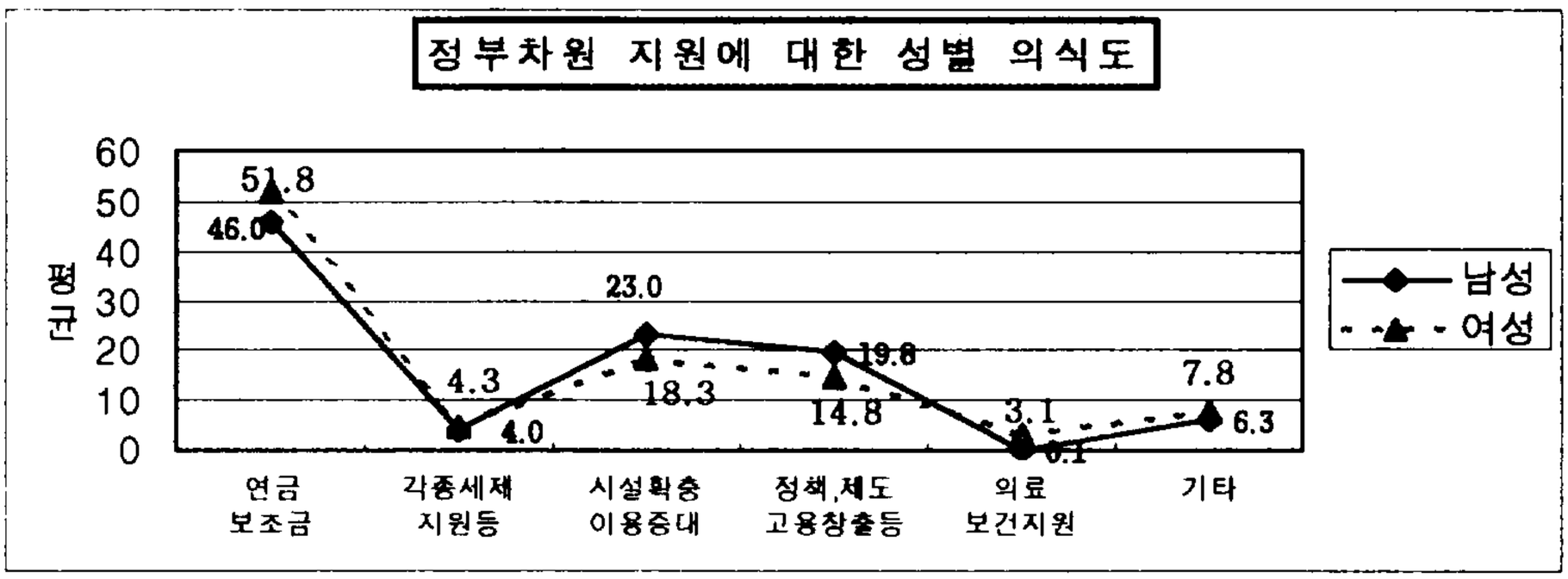
구분 / 동거경험	정부차원	사회·민간	개인적인 해결	기 타	무응답	계
지금살고 있다	52.0	13.7	2.9	5.9	25.5	100.0
산경험이 없다	40.6	15.2	3.3	5.3	35.5	100.0
산경험이 있다	39.9	14.1	3.1	7.0	35.9	100.0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표 4-88>와 <그림 4-9>에서 처럼 정부차원으로 연금·보조금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이용증대, 정책개발·제도개선·고용창출, 각종 세제지원, 의료·보건지원 등의 순위로 저소득층의 노인부양 해결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같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고령화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파악 준비하지 않으면 노인부양 문제에 수반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표 4-88> 조사대상자의 정부차원 지원에 대한 성별 의식 태도

구분 / 성별	연 금 보조금	각종 세제 지원 등	시설확충 이용증대	정책,제도, 고용창출등	의 료 보건지원	기타
남 성	46.0	4.0	23.0	19.8	0.1	6.3
여 성	51.8	4.3	18.3	14.8	3.1	7.8

<그림 4-9> 정부차원 지원에 따른 성별 의식도



제5장 요약 및 결론

오늘날 현대 사회는 문화와 개인의 가치관, 가족 개념의 변화는 노인 부양 의식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3대 4대가 오손도손 모여 사는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서로가 함께 사는 것 보다 떨어져 사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필요할 때 가끔씩 찾아 뵙고 만나는 것이 애뜻한 가족 사랑의 한 방편으로 자리메김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생활문화 패턴이 한 지역에서 대대로 정착하여 대물림하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루가 다른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와 함께 세계가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미래의 부양자가 되는 젊은 대학생들의 노인부양 의식 상태가 어떠한지 ①노인에 대한 의식 태도 ②노인부양에 대한 의식 태도 ③향후 자신의 노후에 대한 의식 태도 ④노인에 대한 경제적·정서적·서비스 부양의 의식 태도, 마지막으로 저소득계층의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사회적 관계 요인들을 선정하여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다가올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정책과 노후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1~3학년 대학생 남성 213명, 여성 437명 총 65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그 조사연구 결과로 얻어진 중요한 발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의식 태도 조사 결과 ①노인 연령에 대한 의식에서 성별, 출생 순위별,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별 모두 60세, 65세, 70세 순위로 나타났는데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만 60세를 회갑년과 직장의 정년퇴직의 기준과 노인복지법에서 만65세를 규정하여 각종 혜택을 지원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노인의 경제적인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 성별, 소득별, 맞벌이 가정별 모두 지금까지 마련한 돈과 자녀의 보조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노인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위해 재취업하는 것에 대하여 성별, 맞벌이 가정별 모두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순위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부양 의식의 실태 분석 결과 ①노인부양의 방법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자녀가 모셔도 좋고 모시지 않아도 좋다가 62.9%며, 여성은 78.0%, 자녀가 꼭 모셔야 한다가 남성은 29.1%인 반면에 여성은 10.8%를 나타내고 있다. ②노인의 부양 의무자에 있어서도 남성은 경제력 있는 자녀가 45.5%이나 여성은 46.5%, 남성은 아들·딸 모두가 28.6%이나 여성은 51.5%로 나타났다. ③출생 순위별에서도 노인부양의 의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남·장녀, 차남·차녀, 독자(외동)는 경제력 있는 자녀, 다음으로 아들·딸 모두 순위로 나타났으며, 막내는 아들·딸 모두 다음으로 경제력 있는 자녀라고 응답하고 있다. ④부모님(시부모님)과 동거 여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가 남성은 30.5%, 여성은 7.8%며, 약간 그렇다가 남성은 30.0%, 여성은 28.8%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윤정[117]도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외동아들과 외동딸의 경우 남성은 모두 모시지 않는다 85.7%, 여성은 형편에 따라 모시겠다가 64.7%

---

117) 김윤정, "대학생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32.

와 모두 모시지 않는다가 23.5%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자신의 노후에 대한 의식 태도에 있어서 ①노후에 대한 자녀와 동거에 대하여 남성은 보통이다가 32.9%, 매우 그렇지 않다가 23.0%, 약간 그렇지 않다가 21.1%이다. 여성은 약간 그렇지 않다가 35.7%, 보통이다가 30.2%, 매우 그렇지 않다가 24.3%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맞벌이 가정별 의식 태도에서 부모가 직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자녀부양 기대 의식 태도에 있어서 부모 맞벌이 가정별 응답에서 부모가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자녀들로부터 부양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노후준비 방법에 있어서 성별, 출생 순위별, 부모의 맞벌이 가정별 등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본인연금과 자산소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④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의식 태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남성은 보통이다가 29.1%, 매우 그렇지 않다가 23.9%, 약간 그렇다가 23.0%며, 여성의 경우에는 약간 그렇다가 35.2%, 보통이다가 23.8%로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복지 시설 이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정서적·서비스 부양 의식에 있어서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부양, 정서적 부양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기는 쉬우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노인 지근 거리에서 신체적인 보살핌이나 정서적인 고독과 소외감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노인부양에 있어서 자녀가 꼭 모셔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부양하더라도 장남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자녀나 아들·딸 모두로 남성과 여성, 시댁과 친정의 차이가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더라도 부모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과 아들·딸 모두 부양비를 일부 분담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시 여겨져왔다. 그러나 연구조사 결과 외동아들과 외동딸의 경우 외동아들은 부모를 모두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반면 외동딸은 형편에 따라 모시겠다거나 모시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결혼과 함께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경로효친과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핵가족화 사이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모와 별거하는 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노인부양 해결 방법으로 정부차원에서 연금이나 보조금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우리는 실제적이며 정책적인 중요성을 갖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주거공간을 제공함에 있어서 노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주택모형을 개발하여 단지를 조성하고(임대아파트와 같이) 노부모부양 가족에게 시범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세대만 거주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가정도우미와 같은 재가복지 서비스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경제적 부담 중 의료비 가중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제 확립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전액 무료 진료와 거동 불편의 독거노인들에게는 재가복지 순회진료(지역 은퇴 의사들의

자원봉사 진료체제를 통한 정기적인 단순 순회 진료, 보건소를 통한 동 담당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체제를 단계적으로 대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부모의 의료비로 지급된 것은 모두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봉양의식도 높여야 한다.

넷째, 급격한 사회변동은 우리 사회의 젊은들이 서구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부모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의 생활은 자녀에게 맡기고, 부모는 부모의 생활이 자녀들에게 종속되거나 의존하려는 마음보다 스스로 책임 있고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시대에 변화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교양교육의 프로그램 보급으로 공중매체를 통한 고정프로그램 편성이나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부양 받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생활양식, 가치관의 변화 등 함께 동거할 수 없는 환경적인 외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 등을 임의규정에서 소득이 있는 곳이면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적립하는 강제규정으로 법을 정비하고 기본생계비 이하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며, 청장년 시기부터 노후를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핵가족 사회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노부모 봉양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양과목으로 선택하여 지역 사회복지관과 연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곱째, 대부분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정년퇴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무위도식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다. 시간근무제(파트타임)를 도입하여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능력이 쇠잔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는 퇴직후 시간근무 고용정책의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임의 규정으로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300인 이상 사업장의 3%를 형식적인 운영보다 지금부터라도 수정 보완하여 모범적인 기본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여덟째, 1986년부터 노부모 봉양에 따른 공무원에게 1인당 월 1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시고 사는 경우 현실에 맞게 인상 지급하고, 일반 기업체 등에도 확대 보급하여 우리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의 가족부양이란 기본 틀을 유지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노부모 부양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가족부양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장남의 몫이었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핵가족과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부양이 장남 우선에서 아들·딸 모두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 모든 일을 장남이 책임을 도맡았으나 모든 자녀들이 분담된 부양을 할 경우에는 자녀간, 아들과 딸간에 주책임을 미루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등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분쟁의 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좋은 미담 사례들을 공개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시켜 노인들이 소비적인 여가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및 봉사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과 프로그램을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노인인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고정자, 「노인복지학 개론」, 서울 : 형설 출판사, 2001.

권육상, 「최신 노인 복지론」, 서울 : 유풍 출판사, 1999.

김기원, 「공공 부조론」, 서울 : 학지사, 2000.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 이해」, 서울 : 학문사, 1999.

김두섭,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김영숙 외, 「성인 간호학 상권」, 서울 : 수문사, 1996.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 방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0.

김치연, 「노인복지 개론」, 부산 : 일오 문화사, 2001.

박광준 외,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부산 : 세종 출판사, 1999.

박재간 외,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 나남 출판, 1995.

사단법인 한국 노인문제연구소, 「유럽의 노인복지」, 서울 : 홍익제, 1995.

서병숙, 「노인 연구」, 서울 : 교문사, 1996.

유성호 외, 「노인 복지론」, 서울 :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2000.

이가옥 편저,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서울 : 나남 출판, 1999.

이소희 외, 「현대 가족 복지론」, 서울 : 양서원, 2001.

이인수, 「노년기 생활과학」, 서울 : 양서원, 2001.

_____, 「현대 노인복지론」, 서울 : 양서원, 1999.

이혜원, 「노인 복지론」, 서울 : 유풍 출판사, 1998.

임춘식, 「현대 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 유풍 출판사, 2001.

장인협, 최성재, 「사회 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_____, 「노인 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정경희 외,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8.

조선일보편집국, 「세계 석학들이 본 21세기」, 서울 : 조광 출판인쇄(주), 2000.

조추용 외, 「가족 복지론」, 서울 : 창지사, 2001.
지영숙, 「현대 가족생활 설계론」, 서울 : 학지사, 1998.
최선화 외, 「사회 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 양서원, 1999.
최순남, 「현대 노인 복지론」, 경기 :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5.
　　, 「현대 노인 복지론」, 경기 :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0.
차흥봉 외, 「고령화 사회의 장기 요양보호」, 서울 : 도서출판 소화, 2000.
한국개발연구원, 「2011 비전과 과제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2001.
한국노년학회 편, 「노년학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0.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세계의 사회복지」, 서울 :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1999.
　　,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서울 :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2000.
황진수, 「현대 복지 행정론」, 서울 : 대영 문화사, 1999.
허정무,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와 노인복지」, 충북 : 도서출판 협신사, 2000.
홍숙자, 「노년학 개론」, 서울 : 도서출판 하우, 2001.

【논 문】

곽필선,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의식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고경애, "한국 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고석주, "우리 나라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광숙, "청소년의 노인관에 대한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김근선, "부모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김성순,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김윤정, “대학생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진규, “노인부양 복지정책에서의 가족역할 제고에 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노대호,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노정옥, “노인부양행위 조사문헌의 경향 변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성수, “노인부양 형태와 부양의식에 대한 연령별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손용섭, “노인부양 문제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손정구, “노인의 부양기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송효석, “가족의 노인 부양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송현애,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인-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심은지, “노인부양 의식의 세대간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영진,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세대별 비교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1.

임인혜,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임장순, “노인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임정선, “노인부양 책임에 대한 의식과 노인부양 행동”,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윤금순, “부모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윤성혜, “청년·중년·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정귀호, “부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88.

정수진,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 부담감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조성혜, “대학생 태도 분석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조진명, “부양서비스가 노인과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최춘혁, “노인과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한은주,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허화자, “노인부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간행물 및 기타】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4.

문화관광부, 「청소년 백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20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백서」, 서울 : 문영사, 2000.

_____, "2002년도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2002.

서울특별시, "제40회 서울 통계연보", 2000.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연보", 2001.

_____, 인터넷, http://www.nso.go.kr/report/data, 2001.10.16. "2000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

_____, "인구동태 통계연보", 2001.

_____, "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2001.

_____, "장래 인구 추계", 2001.

_____, "한국 사회지표", 2000.

노인복지정책연구, 「외국의 노인복지 관련법」,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1996년 추계호 통권 제3호.

_____, 「외국의 노인복지 관련법」,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1996년 추계호 통권 제4호.

_____,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과제」,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1997년 추계호 통권 제7호.

_____, 「21세기 노인복지정책 방향」,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1999년 통권 제14호.

전국노인단체협의회, 「21세기 고령화사회 노인복지행정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2001.12.5.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의 고령화사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버이날 기념 학술 세미나, 2002. 5. 8.

한국노년학회, 「한국 노년학」, 제21권 3호, 2002.

_____, 「한국 노년학」, 제20권 3호, 2000.

_____, 「보건복지 관련 정책의 변화와 노인복지」, 2000년 춘계학술대회.

한국노인과학 학술단체 연합회, 「21세기 노인복지와 장수」, 2000년도 한국노인과학 학술단체연합회 학술대회 및 한국노화학회·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 성서공회, 「성경전서」, 1997.

대한매일, 2002. 2. 25, 제24면.

문화일보, 2001. 8. 10, 제31면.

중앙일보, 2002. 4. 8, 제11면.

노인복지법.

민법.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241호, 2002. 2. 25 공포.

【외국문헌】

Bergman.S, "The Future of Human Welfare of the Aged", ed, Hajine orimo, Kaoru Shimada, Masami Iriki and Daisaku Maeda, *Recent Advances in Gerontology*, Excerpta Medica, Amsterdam, Oxford Princeton, 1978.

Breen.L.B,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Dychtwald.K & Flower.J, *Age Wave : The Challenges andOpportunities of an Aging America*, New York : Bantam Books, 1990.

Kaplan.B.H., Cassel.J.C., and Gore,S.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 1977.

Tibbitts.C. *Origin, Scope and Field of Social Gerontology*, 1960.

설 문 지

ID				

제목 : 우리나라 대학생의 노인부양에 관한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노인부양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인부양에 관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의식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는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연구하는데 사회과학적 실증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각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평소 생각이나 주장을 하나만 골라 해당 공란에 ∨ 표기해 주십시오

본 설문지는 통계법 제7조에 의거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심성의껏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 1 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연 구 자 : 이 신 호

※ 문항들 중에서 자신의 의견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만 ∨ 하세요

Ⅰ. 일반적인 특징

1. 귀하의 성별(연령)은 무엇입니까?

□ 1. 남 (만 세)　　□ 2. 여 (만 세)

2. 귀하의 형제·자매 중 출생 순위는?

□ 1. 장남, 장녀　　□ 2. 차남, 차녀　　□ 3. 막내

□ 4. 독자(외동)　　□ 5. 양자

3. 귀하의 종교는?

□ 1. 불교　　□ 2. 기독교　　□ 3. 천주교　　□ 4. 유교

□ 5. 없음　　□ 6. 기타

4. 귀하의 가정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1. 2백만원 이하　　□ 2. 4백만원 이하　　□ 3. 6백만원 이하

□ 4. 8백만원 이하　　□ 5. 8백만원 이상

5. 귀하의 아버지의 직업은?

□ 1. 단순노무직　　□ 2. 사무직　　□ 3. 서비스 및 판매직

□ 4. 전문직　　□ 5. 무직

6. 귀하의 어머니의 직업은?

□ 1. 단순노무직　　□ 2. 사무직　　□ 3. 서비스 및 판매직

□ 4. 전문직　　□ 5. 주부

7. 귀하는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지금 같이 살고 있다　　□ 2. 같이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

□ 3. 지금은 같이 살고있지 않지만 이전에 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다

8. 귀하의 부모님은 현재 노후 생활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1. 연금 또는 적금　　□ 2. 자산소득(집세, 이자, 배당소득 등)

□ 3. 경제활동　　□ 4. 아무 대책이 없다　　□ 5. 모르겠다

Ⅱ.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태도

1. 귀하는 노인을 몇 세부터라고 생각합니까?

□ 1. 55세　　□ 2. 60세　　□ 3. 65세

□ 4. 70세부터　　□ 5. 75세부터

2. 귀하는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합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약간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지 않다

3. 귀하는 노인을 모시고 사는 경우 식단은 누구 위주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 부모 중심　　□ 2. 부부 중심

□ 3. 자녀 중심　　□ 4. 전가족 중심

4. 귀하는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까?

□ 1. 노인 스스로 벌어서 해결해야 한다

□ 2. 지금까지 마련한 돈(연금, 보험, 자산소득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 3. 지금까지 마련한 돈과 자녀의 보조로 해결한다

□ 4. 자녀가 보조해 주어야 한다

□ 5. 정부와 사회가 보조해 주어야 한다

5. 귀하는 노인이 사회활동·경제활동을 위해 재취업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약간 그렇다

□ 3. 보통이다　　□ 3. 약간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지 않다

Ⅲ. 노인 부양에 대한 의식 태도

1. 귀하는 노인의 부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노인은 자녀가 꼭 모셔야 한다
□ 2. 노인은 자녀가 모셔도 좋고 모시지 않아도 좋다
□ 3. 노인은 자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좋다
□ 4. 노인은 정부나 사회가 모셔야 한다

2. 귀하는 노인의 부양의 주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1. 가족의 책임 □ 2. 정부의 책임
□ 3. 가족과 정부의 책임 □ 4. 정부와 사회의 책임

3. 귀하는 어떤 부양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 1. 자녀와 함께 살면서 노부모님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는 형태
□ 2. 자녀와 함께 살면서 다른 자녀들도 부양비를 보조하는 형태
□ 3. 자녀와 따로 살면서 노부모님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는 형태
□ 4. 자녀와 따로 살면서 경제력 있는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는 형태
□ 5. 자녀와 따로 살면서 자녀들이 부양비를 분담하는 형태

4. 귀하는 노인을 모신다면 누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 장남부부 □ 2. 아들 모두
□ 3. 아들 딸 모두 □ 4. 경제력 있는 자녀

5. 귀하는 결혼후 연로하신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약간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지 않다

6. 귀하는 결혼후 연로하신 장인장모 또는 친정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약간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지 않다

■ ***외동 아들 및 외동딸(무남독녀)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7~8번***

7. 외동 아들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외동딸과 결혼한다면 양가 부모님 부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부모만 모신다　　□ 2. 부모와 장인· 장모 모두 모신다

□ 3. 장인· 장모만 모신다　　□ 4. 형편에 따라 모시겠다

□ 5. 모두 모시지 않겠다

8. 외동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외동 아들과 결혼한다면 양가 부모님 부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시부모만 모신다　　□ 2.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모신다

□ 3. 친정 부모만 모신다　　□ 4. 형편에 따라 모시겠다

□ 5. 모두 모시지 않겠다

Ⅳ. 귀하의 노후에 대한 의식 태도

1. 귀하가 노인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

□ 1. 매우 그렇다　　□ 2. 약간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지 않다

2. 귀하가 노인이 되면 자녀들로부터 부양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

□ 1. 매우 그렇다　　□ 2. 약간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지 않다

3. 귀하가 노인이 되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자녀들로부터의 부양　　□ 2. 본인의 연금 및 자산소득

□ 3. 자녀의 부양과 본인의 연금　　□ 4. 자녀의 부양과 본인의 자산소득

□ 5. 자녀와 정부로부터의 부양　　□ 6. 정부와 사회로부터의 부양

4. 귀하가 노인이 되면 노인복지시설(양로원,요양원,실버타운 등)을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

□ 1. 매우 그렇다　　□ 2. 약간 그렇다　　3. 보통이다

□ 4. 약간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지 않다

※ 귀하의 노인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 정서적 . 서비스 부양 의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난에 ∨ 또는 ○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 부양에 대하여

구 분	매 우 그렇다	약 간 그렇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렇지 않 다	매 우 그렇지 않 다
1. 생활에 그다지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도 노인에게 용돈은 반드시 드린다					
2. 금전 문제로 노인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노인을 위해 되도록 양보한다					
3. 몸이 편찮으실 경우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린다					
4. 노인이 손자녀에게 약간의 용돈을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린다					
5. 노인이 원하시는 물건을 사실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린다					
6. 노인이 취미 생활을 하거나, 노인대학, 친목회 등에 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린다					
7. 노인이 원하시는 여행이나 관광이 있을 때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린다					
8. 노인이 관혼상제에 참석하실 때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드린다					
9. 노인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린다					

▣ 정서적 부양에 대하여

구 분	매 우 그렇다	약 간 그렇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렇지 않 다	매 우 그렇지 않 다
1. 쓸모 없는 물건들을 모아두더라도 노인을 이해하고 나도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					
2.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시더라도 노인을 이해하고 열심히 들어 드린다					
3. 일상 생활에서 내 방식과 다른 경우 노인을 이해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4. 노인이 외로움을 느끼시지 않도록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어 말동무를해 드린다					
5. 노인이 나를 아직도 어린애로 알고 필요 없는 잔소리를 하실 경우에도 끝까지 다 들은 후 공손히 대답한다					
6. 집안의 대소사를 반드시 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7. 노인이 하루 종일 무엇으로 소일하고 계신지에 관해 계속 관심을 가진다					
8. 노인이 이웃집 노인들을 집에 자주 모시고 오더라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잘 대접해 드린다					
9. 나의 배우자와 노인이 대립할 경우 되도록 노인을 위해 양보하도록 설득 한다					

▣ 서비스 부양에 대하여

구 분	매 우 그렇다	약 간 그렇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렇지 않 다	매 우 그렇지 않 다
1. 노인이 갑자기 편찮으시면 밤을 세워 서라도 간호해 드린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친척집이나 친구 집에 방문하시고 자 할 때 모셔다 드린다					
3. 병석에 누워 계시는 노인의 수발(세수, 목욕, 대소변 처리)을 잘 들어 드린다					
4. 노인이 요구하시는 잔심부름을 잘 해 드린다					
5. 노인이 주무시는 데 불편하지 않으신지 자주 잠자리를 돌 봐 드린다					
6. 되도록 노인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식탁을 준비한다					
7. 가족끼리 외식이나 여행 시 반드시 노인을 모시고 간다					
8. 노인이 더러워진 의복이나 속옷을 자주 빨아 드린다					
9. 노인이 집안에서 하실 수 있는 적절한 가사 일을 마련해 드린다					

▣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수 감소와 이혼 등의 증가로 가족이 해체되고,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저소득 계층의 노인부양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하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Lee, Shin-ho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 grave change of culture and the value standard of individuals, especially the change of the notion of the family have seriously affected the consciousness of the support for the aged. We live in a society where nuclear family is regarded as a better system for affectious relations among family members than the traditional large family in which three or four generations live in the same house. The life style of nuclear family seems to provide better chance to remove difficulties and inconveniences of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members, because they can meet each other upon need and escape from the burden of unnecessary meeting.

Thus, the life pattern in the comtemporary society is not the traditional one which builds up in a certain place where family live generation to generation, but a new one which is constituted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global village.

This study has two aims to investigate. The one is to explain the college students' consciousness on the support for the aged, who are the supporters for the aged in the future, the other is to find the alternative for the welfare policy about the aged and the program for the old ag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ollowings: 1) the consciousness and attitude toward the aged, 2) the consciousness on the support for the aged, 3) the consciousness on the self-support in their old age in the future, 4) the consciousness on the support for the aged in terms of finance, emotion, and service. And this research focuses at investigating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for the support for the aged in the lower income group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makes an assumption in respect to the factors of the social relationship. In addition to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used questionnaire to carry out the consciousness survey through random sampling of 650 students (214 male students, 437 female students) who live in Seoul city.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It is decreasing that children should support for their parents. It is not necessarily the eldest son who should support for their parents. However, it is an increasing consciousness that anyone with financial capacity regardless of son or daughter should support their parents. In financial aspect, parents' financial independence in some degree and sharing expenses among children are the favoured system. It was

naturally accepted that women should take care of her husband's parents after marriage. But in the case of the only son and the only daughter, according to the survey, the only son does not want support for his parents, to the contrary, the only daughter, if the situation allows, wants to support for her parents.

Through the research, we can know that to live in separation with parents is increasingly favoured, although they have unclear attitude between the traditional filial piety and individualism and nuclear family system in the contemporary society. For the problem of the support for the aged in the lower income groups, government pension and financial aids are regarded as most favoured solutions.